

변경된 **접견제도**가

2021년 1월 1일부터 실시됩니다.

접견 예약 필수

- 모든 접견을 사전 예약제로 운영
- 민원인의 접견 대기시간 단축 및 접견시간 연장
-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

수용자의 접견민원인 지정

- 수용자가 접견 가능한 민원인을 사전에 지정
- 수용자의 사회복귀에 필요한 민원인과 집중 접견

토요일 아동접견의 날

- 토요일 접견을 '아동접견의 날'로 변경하여 운영
- 접견 민원인의 범위를 미성년 자녀와 주보호자 1인으로 제한
- 학령기 자녀의 학습권 보호 및 접견기회 확대

개인과 조직을 변화시키는 힘:
요점을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힘

문해





오늘날처럼 정보가 무분별하게 범람하는 시대에는 중요 정보를 선별하고 이를 새롭고 복합적인 방식으로 가공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문해력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QR코드를 인식하면 월간 <교정> 참여 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참여코너 신청과 독자 의견 송부가 가능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교정 2020년 12월 호(통권 535호) 64권 12호
www.corrections.go.kr

발행인 이영희 법무부 교정보부장
인쇄 서울남부교도소
기획디자인 하나로에드컴 02)3443-8005

월간 <교정>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무단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부 교정보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페이스북 주소
www.facebook.com/mojcor

유튜브 주소
www.youtube.com/교도소24시

웹진 주소
<http://cowebzine.com/>



페이스북과 유튜브에서 '법무부 교정보부'를 검색하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을 잇는다

04

인트로

말귀가 닫힌 사람들을 위한 문해력에 대한 짧은 생각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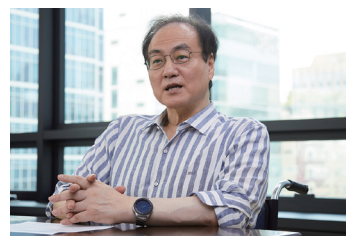
테마

직장인들의 문해력, 성공의 열쇠가 되다

08

피플

문피아 김환철 대표



12

포커스

호모사피엔스의 문해력 블루스 읽고 왜 탄소리야!

희망을 잇는다

16

소원을 말해봐

사랑과 행복이 충만했던 '2020 소원을 말해봐'

20

즐거운 쉽표

눈부신 설경이 펼쳐지는 그곳!

내일을 열다

24

힐링타임

NOTHING

26

심리학 열전

행복은 페이 백이 아니라 페이 포워드

28

보라미, 보드미와 함께

3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교정공무원의 고민상담소

32

맛남의 교정

상큼달콤한 굴쟁과 굴청



34

방구석 1열

고전이 디지털 시대에 연착륙할 때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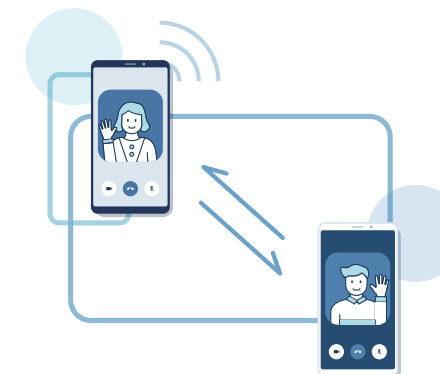
헬시라이프

독감과 감기, 코로나19 어떻게 구분할까?

38

트렌드 이슈

2021 트렌드 내다보기



40

전국 교정인 자랑 나의 파프리카 농원

42

희망의 백일장

속죄의 열매 새날의 꿈

44

교정은 지금 1

'제1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46

교정은 지금 2

안화경비 교정시설의 표준 모델, 강원북부교도소 개청

48

교정리포트

54

카드뉴스

56 NEWS

본부소식&일선기관 소식

63

모범공무원

64 칭찬합시다

65 해보니 다르더라

66 퀴즈

말귀가 닫힌 사람들을 위한 문해력에 대한 짧은 생각

“웹 페이지를 살펴보는 데 시간을 보내느라 책 읽을 시간이 사라졌듯이, 작은 글자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시간 때문에 문장과 절을 지어내는 데 투자하는 시간이 사라졌듯이, 링크들 사이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느라 보내는 시간이 조용한 명상과 사색의 시간을 몰아냈듯이, 오래된 지적 기능과 활동에 사용되던 회로들은 약해지고 해체되기 시작했다. 뇌는 사용하지 않는 뉴런과 시냅스를 더욱 긴급한 다른 업무 수행을 위해 재활용한다. 우리는 새로운 시각과 기술을 얻었지만 오래된 것은 잃어버렸다.”

(니콜라스 카의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180쪽)

“나랏말싸미 등궤에 달아 문자와로 서르사맛디 아니할씨”(나라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않으므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세종대왕이 이를 불쌍하게 여겨 새로 글자를 만들었으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마다 편하게 써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글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우리가 매일 쓰는 한글이다. 그러나 읽어도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는 후손들이 늘어났다고 하니 세종대왕이 통탄할 일이다. 오늘날처럼 정보가 무분별하게 범람하는 시대에는 중요 정보를 선별하고 이를 새롭고 복합적인 방식으로 가공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가장 기초적인 능력은 무엇일까? 바로 문해력(文解力·literacy)이다. 문해력은 문맥 안에서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해석할 수 있는 힘이다. 하지만 우리 주변의 미디어 환경은 깊이 생각하며 읽는 일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 혹자들은 뇌가 변하고 있다고 말한다.

직장인들의 문해력, 성공의 열쇠가 되다

대기업 신입사원 채용 시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은 무엇일까. 지원자들의 스펙에 붙는 가산점이야 기업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업무 현장 실무자들은 '읽기와 분석 능력이 좋은 신입사원'을 선호한다. 고스펙을 자랑하는 지원자들이 넘쳐나는 요즘 시대에 '읽기'라니, 싶지만 실제로 보고서를 잘못 이해해 실수를 하는 신입사원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아무리 이미지와 영상이 대세인 시대이지만 여전히 직장인의 의사소통 가운데 문서소통이 70% 이상을 차지한다.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문해력은 직장인의 기본역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해력이 경쟁력인 시대

문해력은 텍스트를 이해하고 평가한 뒤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단순히 단어와 문장을 해독하는 것을 넘어 복잡한 텍스트를 읽고 해석하고 평가하는 능력까지 아우른다. 또한 인간의 생활과 사고방식을 좌우하는 능력이다. 현대사회에서는 문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인간답게 살기 어렵다. 문해력이 떨어지면 디지털 및 미디어 리터러시도 좋지 않기 때문이다. 각종 디지털 기기 조작 과정과 원리를 이해하는 데서 어려움을 겪다 보면 유용한 지식과 최신 정보 습득에 둔감해질 수밖에 없다.

문해력 부족은 학교뿐 아니라 직장에서의 의사소통 문제까지 발생시킨다. 실제로 성인 중 상당수가 문서 파악뿐 아니라 기본 독해능력이 떨어져 문서를 오독하거나 분석을 잘못하는 경우도 많다. 문해력 저하로 인한 실수가 사회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문제는 문해력이라는 게 성인이 되고 나서는 독서 등을 통해 교육하고 훈련해도 쉽게 나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많은 전문

가가 학교 정상화의 조건으로 독서 중심 교육을 주장하는 이유는 문해력이야말로 현대인에게 요구되는 필수 능력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문해력 안녕하십니까?

문해력 저하는 단어·글자 자체를 인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질병인 난독증과 달리 내용을 읽어도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만약 한 문장을 계속 읽고 있어도 글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무슨 내용인지 선뜻 이해할 수 없다든지, 또는 문장의 전체 맥락이 아닌 특정 단어 자체의 의미에 집착하고 더 이상 이해의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면, 혹은 글의 내용에 상관없이 일정 분량을 넘어가는 장문의 글을 도무지 읽어낼 엄두가 나지 않는다면, 자신의 문해력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문해력 향상에 '왕도는 없다'고 지적한다. 꾸준한 독서 훈련·교육 이외에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설명이다. 그래서 다시 부는 트렌드가 독서모임의 부활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유료 독서모임이다. 주 연령층은 30대 초중반 직장인으로 알려



져 있는데 유료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속에서도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사실 독서클럽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모임으로 특별한 것도 없다. 그저 읽고 온 책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니 말이다. 일각에서는 마치 17세기 프랑스의 유명 살롱들을 중심으로 예술과 문학이 활발히 성장하던 모습과 비교하여 21세기 '살롱'의 부활을 말하기도 한다. 가족의 축소와 1인 가구의 증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만 이어지는 관계의 피로에 대한 탈출이 독서모임의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어떻게 읽어야 할까

독해력이 단순히 글을 읽고 이해하는 데 그친다면, 문해력은 글을 읽은 뒤 자기만의 언어로 '재해석'하는 힘까지를 포함한다. 단순히 책을 읽는다고 저절로 생겨나는 능력은 아닌 셈이다. 게다가 요즘처럼 바쁜 시대에 독서만이 살길이라고 말하는 건 세

문해력은 글을 읽은 뒤 자기만의 언어로 '재해석'하는 힘까지를 포함한다.

상 물정을 너무 무시한 솔루션이다. 이럴 때 한 권을 읽더라도 자기 생각과 느낌에 집중하며 읽는 훈련이 필요하다. 글의 흐름을 보고 질문을 던지면서 글의 방향을 예측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모두 인습적인 형태와 색채만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문장이 있다고 치자. 이 문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질문 던지기과 예측하기를 동시에 하면서 읽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옳을까? 아마도 글쓴이는 인습적인 형태와 색채만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하고자 할 거야. 그런 주장에는 이유가 있어야 하니 왜 그런지를 밝히겠군' 하는 식이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앞으로 전개될 내용까지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예측하면서 비판적으로 읽으면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한다. 좀 더 여유가 있다면 좋아하는 문구를 필사하는 것도 좋다.

'문해력'을 키워 시대의 트렌드를 읽어내고 미래를 내다보라!

웹소설 플랫폼 '문피아' 김환철 대표

좀처럼 책을 읽지 않는 세대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요즘 아이들은 글을 깨치기도 전에, 스마트폰 등 영상 미디어에 길들여져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러니 어른이 돼서도 책을 읽지 않는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문해력이 떨어지고 있는 요즘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 장르문학의 1세대 작가이자 웹소설 플랫폼 '문피아'의 김환철 대표에게 조언을 구했다.

'문해력(文解力)'은 글자 그대로,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다. 유네스코는 문해(文解)를 '글과 출판물을 사용하여 정의, 이해, 해석, 창작, 의사소통, 계산 등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요즘 같은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는 단순히 문자를 읽고 쓰는 능력을 넘어 문해력을 좀 더 폭넓게 해석한다.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요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 트렌드를 읽는 능력까지 아우른다.

요즘에는 소설도 종이책이 아닌 웹으로 읽는 시대다. 특히 좀처럼 책을 안 읽는 젊은 층이 선호하는 장르 중 하나가 웹소설이다. 웹소설은 단순히 인터넷으로 읽는 소설이 아닌, 각종 게임과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콘텐츠의 원천이 되면서 우리나라 흥행 콘텐츠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소설을 읽지 않는 이유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콘텐츠를 꾸준히 개발하는 것이 우리 회사의 역할입니다. 웹소설은 그동안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되면서 꾸준히 인기를 얻고

성장해왔습니다. 웹소설은 소설 분야를 넘어 콘텐츠 분야를 아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웹소설 시장은 해마다 10퍼센트 이상 빠르게 성장해왔으며 이 중심에 웹소설 플랫폼인 '문피아'가 있다. 김환철 대표는 웹소설 작가이자 장르 문학의 1세대 작가로 40년 이상 글을 써왔다. 김 대표는 다양한 콘텐츠의 원천이 되는 웹소설을 활성화하고 소설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은 작가들의 등용문인 문피아를 설립한 주역이다. 문피아는 웹소설 작품의 글로벌 진출을 펼쳐왔고 2년 전 중국 CCL과 엔씨소프트의 투자를 받기도 했다.

디지털 시대, 요점 파악하고 시대를 읽어내는 능력 키워야

디지털 시대, 점점 글을 안 읽는 시대에 사람들이 요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대를 읽어내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김환철 대표는 문해력에 관해 얼마 전 이슈가 된 사례를 언급하였다. 얼마 전, 유명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사흘'이라는 단어가 올라왔다. 김 대표는 '이게 무슨 일이지?'



궁금해서 열어봤더니, 놀랍게도 사람들이 '사홀'이란 단어를 놓고 '3일이나? 4일이나?' 하면서 논란이 되었던 것이다.

"사실 모르면 배우면 됩니다. 개인이 아는 것은 한계가 있고 어떤 사람도 모든 걸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한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심지어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 안다고 단정하고,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사홀'이라고 하면 언뜻 듣기에 4일로 느껴진다. 모르면 찾아보면 된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금세 나온다. 예전에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두꺼운 사전을 펴서 일일이 찾아봐야 했다. 쉽게 정보를 접하고 찾는 시대에, 본인이 모르거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일른 찾아보자. 바로 해결된다.

"요즘은 조금만 어려운 단어를 쓰거나 문장이 조금만 복잡해도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해력이 많이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문해력을 높이는 방법은 책이든, 웹소설이든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웹소설을 즐겨 읽은

학생들은 특히 국어 성적이 높게 나옵니다. 늘 책과 문자를 가까이하면서 독해력과 문해력이 저절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소설이나 만화 등 뭐든지 읽는 습관 길러야

김환철 대표는 "어쩌면 가장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교정공무원이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교정공무원들은 직업 특성상 예상치 못한 여러 상황을 겪기 때문에 문제의 핵심과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는 문해력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세상에 다양한 직업이 있지만 교정공무원들이 하는 업무는 좀 더 어렵고 무겁게 느껴집니다. 2020년은 코로나가 온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세상에서 언제 어느 곳이든 방역은 기본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정 환경도 많이 변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정공무원들도 시시각각 변화하는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요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트렌드를 읽는 능력까지 키우는 '문해력'이 필요합니다."

김환철 대표는 교정공무원들에게 "소설이나 만화, 신문 등 인쇄



"시시각각 변화하는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려면 요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트렌드를 읽는 힘이 필요합니다."



매체에 관심을 갖고 읽는 습관을 들이려"며 "더 나아가 일기를 쓰듯,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등을 글로 자주 쓰다보면 생각이 정리되고 핵심을 짚어내는 요령이 생긴다"라고 말했다.

업무 능력과 역량 키우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 활용하길

"제 경우, 항상 뭔가에 몰입한 상태에서 영감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스를 보다가, 드라마를 보다가 또는 음악을 듣다가 문득 아이디어와 영감을 얻습니다. 디지털 시대, 다양한 콘텐츠에 몰입하다 보면 시대를 앞서 포착하고 요점을 파악하는 문해력까지 키워질 것입니다."

김환철 대표는 "교정공무원들이 업무 능력과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도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조언했다.

"책도 그렇고 한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콘텐츠를 접하는 것이 본인의 정신세계를 풍성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편중된 독서보다는 사고의 폭과 관점을 넓히는 다채로운 장르를 접하는 것이 교정 업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람의 인식 체계와 사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폭넓은 분야를 다양하게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 대표는 "문장의 의미를 읽어내고 요점을 파악하며 그 함의가

지 분석하는 능력이 생기면, 이는 업무에서도 역량을 발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해력 키우면, 어떤 상황에 닥쳐도 대처하는 능력 생겨

"결국 글을 읽는다는 것은, 내 정신의 삶을 짜우고 다양한 지식을 섭렵하는 과정입니다. 저는 늘 후배나 제자들에게 '뭐든 가리지 않고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정공무원들이 다양한 장르의 글을 접하고 읽으면, 지식의 양이 쌓이고 생각의 범위도 확장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고가 확장되면 어떤 상황을 겪더라도 현명하게 대응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김환철 대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교정공무원이 있기에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모든 국민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을 다해 응원하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교정이라는 것은, 세상의 여러 가치 중에서도 가장 숭고하며 그 일을 담당하는 교정공무원은 세상 어떤 일보다 고귀한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 어느 해보다 힘들고 다사다난한 2020년이 저물어갑니다. 새해에는 더욱 희망차고 좋은 일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호모사피엔스의 문해력 블루스 읽고 왜 탄소리아!

한국의 문맹률은 1~2% 수준이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문맹률을 조사한 건 2008년이 마지막인데 당시 조사에서 1.7%가 나왔다. 세계에서든 손꼽히는 고학력 지향 사회인 만큼 그 후로 문맹률은 더욱 떨어졌을 것이다. 재미있는 건 실질문맹률이 75%나 된다는 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실질문맹이란 모르는 글자가 없는데도 문장이나 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 뜻한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문해력은 호모사피엔스의 후천적 성취

문해력(文解力)은 호모사피엔스의 가장 중요한 후천적 성취 중 하나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 다른 종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 미국 신경심리학자 매리언 올프가 그의 책 <책 읽는 뇌>에서 “인류는 책을 읽도록 태어나지 않았다. 독서는 뇌가 새로운 것을 배워 스스로를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인류의 기적적 발명이다”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호모사피엔스가 지구 위에 나타난 것은 약 20만 년 전, 문자가 발명된 것은 고작 8000년 전이다. 인류는 문자 없이 살아온 세월이 훨씬 더 긴 존재였다. 그렇다면 문해력의 DNA는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올프는 우리의 유전자 속에 문해력의 유전자가 생겨날 수 있었던 것은 오랜 세월 훈련해온 독서의 힘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올프는 책 읽는 데 훈련된 인간의 뇌가 디지털 시대를 맞아 변하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경험에 기반한 성찰의 결과다. 젊은 시절 자신이 열렬히 사랑했던 헤르만 헤세의 소설 <유리알 유희>를 더는 읽을 수 없었던 것. 어려운 단어, 꼬인 문장, 느려터진 전개를 견디지 못했다. 책을 읽는 동안 올프는 책장을 빠른 속도로 앞뒤로 뒤적이면서 같은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어냈다. 뇌가 문장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야기의 심층을 살피는 데 필요한 ‘인지적 참을성’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수천 년간 진화해온 ‘읽는 뇌’가 퇴보한 이유에 대해 올프는 디지털 정보 소비에 중독된 탓이라고 분석했다. 최고의 독서학자도 이럴진대 140자 트위터에 익숙해진 인간의 뇌는 머지않아 문해력의 힘을 망각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인공지능(AI)과 경쟁할 유일한 힘, 문해력

문해력의 위기, 즉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점점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는 다른 곳에서도 찾을 수 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이 급부상하고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수학(Mathematics)의 융합 학문인 스템(STEM)이 차세대 교육으로 떠오른 마당에 웬 문해력 타령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문해력이야말로 인간이 AI와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로 꼽힌다. AI가 갖추지 못한 능력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뇌와 달라서 AI는 통계와 확률에 기반한 계산기 같은 존재다. 평균치는 그 누구보다 빨리 도출할 수 있지만, 정작 평균의 의미는 모른다는 치명적 한계를 안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렵다. 체스나 장기에서는 이미 인간의 지력을 뛰어넘은 능력자이기 때문이다.

대학 입시도 AI와 경쟁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일본에서는 그 가능성을 실제로 실험해 화제가 된 사람이 있다. 일본 국립정보학연구소 아라이 노리코 교수가 그 주인공이다. 그는 2011년부터 '도로보 군'이라고 이름 지은 AI를 자식처럼 키우면서 도쿄대학교에

합격시키는 것을 목표로 도전해온 수학자다. 100여 명에 이르는 과학자의 지원을 받아 2021년 도쿄대 입학 을 목표로 도로보 군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어느 수험생처럼 출제경향과 문제 유형을 분석하고 모의고사를 치르며 문제해결 능력을 높여갔다. 7년을 공들인 보람이 있어, 도로보 군은 전체 수험생의 상위 20%에 해당하는 우등생으로 성장해 웬만한 대학은 입학할 수 있는 성적을 얻었다. 그러나 목표한 도쿄대에 가기에는 2% 부족한 점이 있었다. 도쿄대 입학 프로젝트를 추진한 연구팀은 결국 4수 만에 도전을 포기한다고 선언했다. 현재의 기술로는 도로보 군이 도쿄대에 합격할 가망성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연구팀이 AI 도로보군의 한계로 꼽은 것은 무엇일까.

“AI는 교과서에 적힌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 맥락을 파악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입력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통계적으로 답을 도출한다. AI의 약점은 1만 개를 가르쳐야 간신히 하나를 아는 것, 응용력이나 유연성이 없는 것, 정해진 프레임 속에서만 계산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AI는 독해력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이해력이 없다. AI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에게 필요한 능력도 바로 이것이 될 것이다.”

아라이 교수가 말하는 ‘독해력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이해력’, 이것이 바로 문해력이다. 그는 AI와 경쟁하며 살아가야 하는 인간에게 필요한 능력으로 이것을 꼽았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한 가지 더 있다. 아라이 교수는 인간이 AI보다 문해력이 뛰어나니 안심해도 된다고 결론 내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다. 인간이 문해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AI와 경쟁하며 살아야 할 미래의 아이들은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없다고 경고한다. 아라이 교수가 미래를 암울하게 예언하는 이유는 현재의 교육방식 때문이다. AI와 ‘마찬가지로’ 단순암기와 계산에 의존하는 공부 방식을 우려한다. 이런 공부 방식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 머지않아 AI와 마찬가지로 간단한 문장의 인과관계조차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문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왜 제대로 읽고 딴소리일까, 실질문맹의 나라

우리나라는 다를까. 문맹률이 1~2%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로 손꼽히는 나라. ‘읽기쯤은 식은 죽 먹기’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 문제는 ‘오빠라고 읽으면서 언니라고 부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읽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실질문맹’이라고 한다. 말 그대로 실질적인 문맹이라는 뜻으로 문해력, 즉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기준으로 삼는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자료에 따르면 문해 측정 영역은 산문 문해, 문서 문해, 수량 문해로 나뉘는데 여기서 우선 논설이나 기사, 시, 소설 등의 텍스트 정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필요한 산문 문해를 중심으로 이야기한다. 아이러니하게도, 문맹률이 가장 낮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이 ‘실질문맹률’에서 꼴찌다.

실질문맹 검사는 약봉지에 쓰인 설명을 읽고, 투약 시기나 투약량 등을 맞추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정보는 생존에 필요하기 때문에 딱히 길거나 전문적이지도 않고, 비유나 상징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실질문맹들은, 모르는 단어 없이 다 읽고도 의미를 독해하는데 실패하여 틀린다. 문해력은 글을 안 읽을수록 떨어지고, 시기를 놓치면 어느 수준 이상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독서 경험이 빈곤했던 중장년층에서 실질문맹이 가장 많지만 최근에는 10대 학생들의 비율도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다.

문해력 부재는 인터넷상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잘 버린 칼 같은 논리와 찰떡같은 비유로 읽는 것만으로도 황홀해지는 글 아래에 달린 댓글들이 그렇다. 글의 맥락을 무시한 채 몇 개 어휘에 매달려 서로 옥신각신하는 댓글들을 보면 씁쓸해진다.

높은 실질문맹률의 원인으로 부실한 교육과정, 열악한 노동환경이나 과도한 학습시간 등이 지목된다. 책을 읽기에는 너무나 ‘저녁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데다 읽고 쓰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경제적·시간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만 열심히 읽는 것은 아니니, 구조적인 문제로만 접근할 수도 없다. 어떤 삶이든 시간이 충분한 사람은 없고, 안 읽는 사람은 어떤 조건에서도 안 읽으니까. 어려운 글들을 기피하고 인터넷의 세 줄 요약 정보에 만족하는 동안 어딘가에서는 수천, 수만 페이지의 전문적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방대한 정보가 특정 소수만이 독점하는 정보로 남게 된다고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든다. 디지털 시대에도 ‘힘 있는 사람들’은 문해력을 바탕으로 그 힘을 유지하고 있다.



사랑과 행복이 충만했던 '2020 소원을 말해봐'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서로 단절되고 외로운 한해를 보낸 일들이 적지 않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옆에 사랑하는 가족과 든든한 동료들이 함께했기 때문이다. 교정공무원들은 가슴 깊이 묻어둔 소원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풀어나가며 2020년을 조금이나마 보람 있고 희망차게 보낼 수 있었다. 2021년에는 또 어떤 소원의 주인공이 기다리고 있을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렌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했던 소원을 말해봐

2020년에는 '소원을 말해봐'를 통해 교정공무원들의 소원을 들어보았다. 과연 그들의 소원은 무엇일까. 매달 코너를 진행하면서, 수용자들의 교정교화를 위해 밤낮없이 애쓰고 있는 교정공무원들의 마음이 그 누구보다 따뜻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들의 소원은 하나같이 자기 자신보다는 가족, 동료, 그리고 이웃들을 위한 것이었다.

가족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계획하고 업무에 지친 동료들을 격려하기 위해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소원 카드를 쓰기도 했다.

낯선 체험에 따른 서툴러 실수도 하고 멀리 여행을 떠나 가끔 비바람을 만나기도 했지만 직원들의 얼굴은 항상 설레고 웃음이 가득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어렵고 힘든 사회적 분위기 탓에 계획이 무산되기도 하고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데 제한이 많았지만 그 속에서도 언제나 웃음꽃이 피어났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기에 예상치 못한 난관이 닥쳐와도 아랑곳없이 즐거웠던 것은 아닐까. 2020년 소원을 말해봐는 사랑이 충만했다.

소소한 소원 속에 커다란 행복이

업무에 지친 교정공무원들의 힐링을 위해 평소 실천하고 싶었지만 선뜻 하지 못했던 소원을 실현시켜주는 '소원을 말해봐' 코너를 되돌아보면, 소원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그들이 원한 것은 커다란 무언가가 아닌 소소한 것들이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각종 체험,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잠깐 떠나는 여행, 누군가를 위한 선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봉사.

평소 오랫동안 마음속에 간직해온 바람인 만큼 직원들은 언제나 기대감에 가득 찬 얼굴을 하고 적극적으로 시간을 즐겼다. 하루를 온전히 즐기고 나면 사랑하는 사람과 또 하나의 추억이 쌓이고 그만큼 행복도 커진다. 더 나아가, 동료들과 함께 만든 체험물을 지역사회를 위해 고생하는 기관에 선물하고, 또 저 멀리 아프리카의 불우한 이웃들에게 전달하기도 하며 그들의 소원이 또 하나의 행복을 낳기도 했다.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웠던 2020년이 가고 희망찬 새해가 밝아온다. 2021년에는 어떤 소원들이 교정본부의 문을 두드릴까. 새해에도 가슴속 깊이 간직해온 소원을 풀어보고 싶은 교정공무원들을 기다린다.



1월

두둥실 무중력 세계로! '실내 스카이다이빙 체험'



서울구치소 총무과 안성호 교사와 동료

2월

하늘을 날다 '경비행기 체험'



경북북부재교도소 이승진 교감 가족

3월

고소하고 달콤한 가족 사랑을 느끼다 '전주 체험여행-치즈와 초코파이 만들기'



청주교도소 보안과 양철화 교사 가족

4월

집콕으로 지친 가족들에게 특별한 이벤트를
'딸을 위한 책선물, 그리고 피자파티'



안양교도소 김정훈 교위 가족

5월

마카롱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강릉시청 직원들에게 마카롱 선물'



강릉교도소 박인숙 교위와 동료

8월

사랑이 방울방울
'천연비누 만들기'



원주교도소 보안과 최진혁 교사와 어머니

9월

아내와 특별한 데이트
'스테인드글라스 공예품 만들기'



서울구치소 보안과 이강철 교사와 아내

6월

세상을 바꾸는 힘
'아프리카 아이들을 돕기 위한 장난감 만들기'



여주교도소 정춘교 교감과 동료

7월

한여름 밤의 추억
'카라반 여행'



포항교도소 전두민 교위와 동료

10월

가족들과 언택트 힐링 여행
'웬션 나들이'



경북북부제3교도소 권석 교위 가족

11월

제주도 초원에서 말 달리자~!
'승마체험'



제주교도소 박재형 교위 가족

White Winter 눈부신 설경이 펼쳐지는 그곳!

눈은 설렘이다. 차가운 눈이 내리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따스해진다.
눈은 마법이다. 눈이 내리면 딱딱한 현실은 말랑한 동화가 된다.
눈은 기다림이다. 기약 없는 기다림 끝에 만나는 반가운 손님이다.
눈은 화가다. 지저분한 세상을 하얗게 채색해 한 폭의 그림을 만든다.
이 겨울, 그 눈을 가장 아름답게 마주할 그곳으로 떠난다.

동화 같은 겨울 풍경, 원대리 자작나무 숲

하얀 속살 드러낸 수많은 자작나무 위로 순백의 눈이 소복이 내려앉는다. 어디를 둘러봐도 세상은 온통 하얗다. 북유럽 어딘가의 겨울 풍경이 아니다. 강원도 인제에서 만나는 설경이다. 인제 원대리 자작나무 숲은 이런저런 TV 프로그램에 소개되면서 인지도를 높였는데 아직도 “우리나라에 이런 자작나무 숲이 있었어?”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2010년대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일반인에 개방하기 시작했으니 이 숲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원대리 자작나무 숲은 자연 숲이 아니라 인공림이다. 원래 소나무가 많았던 숲인데 병충해를 입는 바람에 소나무를 베어내고



드라마 <겨울연가> 촬영지, 남이섬



남이섬의 메타세콰이어 길.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자작나무 약 70만 그루를 심고 가꾸었다. 속성수인 자작나무가 쑥쑥 자라면서 빼곡한 숲이 다시 만들어졌다. 푸르른 소나무숲이 있던 자리에 순백의 자작나무 숲이 새로 태어난 것. 대규모 자작나무 숲은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깊은 산속에 위치해 한동안 인적이 닿지 않는 비밀의 숲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다 2008년 유아숲체험원으로 처음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고 2012년부터 일반에 개방됐다.

신비의 자작나무 숲을 만나러 가는 길은 쉽지만은 않다. 안내소가 있는 입구에서 임도를 따라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를 걸어 올라가야 한다. 아랫길이라 불리는 원대임도와 윗길인 원정임도가 있는데 원대임도는 개울과 나무를 벗 삼아 걷는 산길이고 원정임도는 비교적 잘 정비된 길이다. 원대임도는 길이 2.7km, 도보 1시간 코스, 원정임도는 3.2km, 1시간 20~30분 코스다. 원대임도는 자연 속에서 걷는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군데군데 험난한 길이 있다. 원정임도는 원대임도보다 완만한 편이나 자연미는 덜하다. 두 길을 모두 걸어보고 싶다면 올라갈 때는 원대임도, 내려올 때는 원정임도를 이용하길 권한다. 겨울철 눈이 쌓인 시기에는 안전하게 원정임도로 오르고 내리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도 길이 미끄러울 수 있으므로 아이젠을 준비하면 좋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하지 않았던가. 1시간 내지 1시간 반 동안 걸은 후 드디어 환상적인 자작나무 숲과 조우한다. 하늘을 향해 쪽쪽 뿜은 자작나무가 뿜뿜이 늘어진 숲에 서면 현실감을 잃고 만다. 쪽빛 하늘과 순백의 눈이 배경이 되는 겨울에는 더욱 그렇다. 사계절 내내 오묘한 풍경을 연출하지만 추운 지역에서 자라는 자작나무 특성상 겨울 정취에 더욱 잘 맞아떨어진다. 겨울 햇살이 내리쬐는 날이면 숲은 빛난다. 광택이 나는 나무껍질을 가진 덕에 자작나무가 반짝거리고 바닥에 깔린 새하얀 눈도 반짝거린다.

자작나무는 웬지 이국적인 느낌이 다분하지만 사실 우리 역사에도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경주 천마총에서 출토된 그림, 도산서원의 목판, 팔만대장경의 일부가 자작나무로 만들어졌다. 한반도에서는 함경남북도 고지대 등 북한 쪽에 자작나무가 많이 분포한다고 알려져 있다. 평안북도 출신의 시인 백석은 ‘자작나무’라는 시에 “산골집은 대들보도 기둥도 문살도 자작나무다 / 밤이면 캥캥 여우가 우는 산도 자작나무다...(중략) / 산 너머는 평안도 땅도 보인다는 이 산골은 온통 자작나무다”라고 적었다. 북녘땅을 밟을 수 없는 지금은 강원도 인제에서 이렇게 자



드라마 <겨울연가> 이후 남이섬의 마스코트가 된 눈사람



겨울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남이섬의 야경

작나무를 맘껏 볼 수 있어 다행이다.

Tip 원대리 자작나무 숲 동절기 입산 가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이며 월·화요일은 휴무다. 산발 조심 기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입산이 통제될 수 있으니 방문 전 안내소(033-461-9696)에 문의하자.

로맨틱한 겨울 풍경, 남이섬

남이섬은 화사한 봄꽃, 시원한 녹음, 화려한 단풍, 순백의 설경으로 사계절 내내 아름답다. 그중에도 겨울의 남이섬이 특별한 이유는 이제는 옛 드라마가 됐지만 여전히 강렬한 겨울 이미지를 남긴 드라마 <겨울연가> 때문이다. 드라마를 봤든 아니든 눈부신 겨울 풍광 속에 녹아들던 장면들은 문득문득 기억할 터. 남이섬이 해외 여행자도 몰려드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한 것도 이 드라마 덕분이다. 드라마에 대한 기억은 희미해졌지만 드라마 속에 등장했던 남이섬의 겨울 풍경과 눈사람은 지금도 똑같이 건재한다. 드라마에 나왔던 눈사람은 남이섬 마스코트가 되어 사계절 내내 남이섬 곳곳에서 만날 수 있게 됐다.

겨울날 남이섬을 방문한다면 꼭 방문해야 할 장소가 바로 <겨울연가> 속 눈사람 뽀뽀 장면으로 유명한 그 장소다. 테이블 위에

하늘을 향해 쪽쪽 뿜은 자작나무가 뿜뿜이 늘어진 숲에 서면 현실감을 잃고 만다. 쪽빛 하늘과 순백의 눈이 배경이 되는 겨울에는 더욱 그렇다.



풍력발전기가 이국적인 정취를 더하는 대관령 삼양목장

땡그러니 눈사람 모형이 놓인 모습이 다른 계절에는 조금 생똥하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겨울만은 예외다. 주변이 온통 눈으로 뒤덮인 겨울에는 뽀뽀하는 눈사람이 그저 로맨틱하게 다가온다. 메타세콰이아 길도 놓칠 수 없다. 키 큰 메타세콰이아가 양쪽으로 늘어진 길은 남이섬 대표 명소이기도 하다. 잎을 다 떨구고 가지만 앙상한 나무들이 쓸쓸스스러워 보일 법도 한데 눈꽃이 내려앉아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섬 중심부가 아닌 가장자리 산책로도 가보자. 아직 사람들 발길이 닿지 않은 소복한 눈길 위를 뽀드득뽀드득 걸어볼 수 있다. 눈 쌓인 잔디밭이나 광장에서는 눈을 뭉쳐 커다란 눈사람도 만들어본다. 군데군데 몸을 녹일 모닥불도 준비되어 있다. 겨울다운 겨울을 만끽하기에 이만한 곳이 또 있을까.

이국적인 겨울 풍경, 대관령

유럽에 알프스가 있다면 우리에게 대관령이 있다. 태백산맥에 위치한 대관령은 선자령, 발왕산 등 높은 산에 둘러싸인 분지로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물게 넓은 고원을 자랑한다. 지형적·기후적 특성 탓에 목축업이 발달해 대관령에만 대규모 목장이 여럿 있다. 그중 동양 최대라는 삼양목장은 규모가 2,000만㎡(약 600만 평),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7.5배라니 목장의 경계가 가늠이 가지 않는다. 워낙 넓은 목장이라 내부를 도는 셔틀버스가 따로 있다. 방문객들은 보통 셔틀버스를 타고 원하는 곳에 내려 걷고 관람한다. 단 겨울에는 셔틀버스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자차로 돌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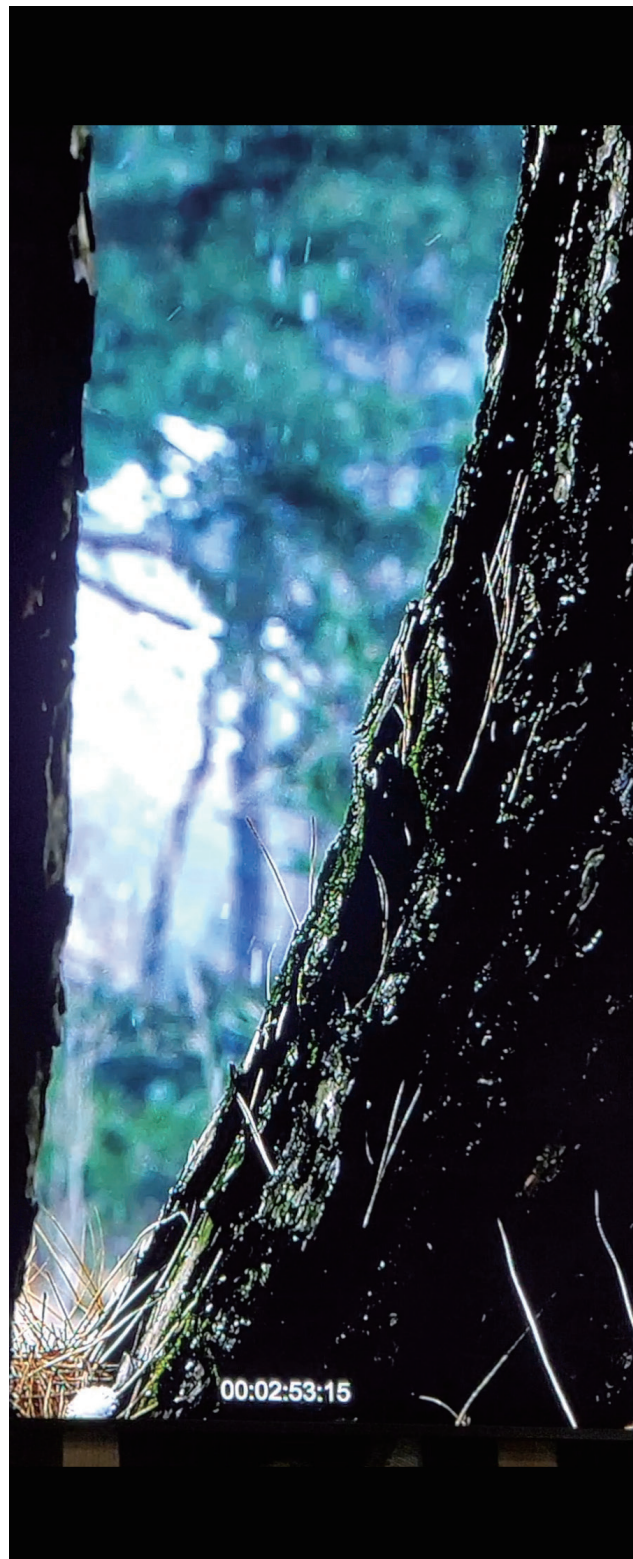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목장의 가장 꼭대기, 해발 1,140m에 위치한 동해전망대로 먼저 올라간다. 이곳에 서면 대형 풍력발전기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설원 위에 하얀 풍력발전기 50여 기가 위풍당당하게 늘어진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다. 매서운 대관령의 겨울 추위를 감내하며 이곳을 찾은 사람들의 노고를 충분히 보답해주는 절경이다. 날씨가 맑은 날에는 동해까지 내다볼 수 있으니 더 만족스럽다. 동해전망대를 시작으로 내려오면서 원하는 장소에 멈춰 관람하면 된다. 겨울에는 추운 날씨로 인해 방목을 중단해 초지에서 뛰노는 소나 양은 볼 수 없다. 대신 끝도 없이 펼쳐지는 하얀 눈 세상이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 체험장에서는 양과 타조를 보고 먹기도 줄 수 있다. 목장을 떠나기 전 삼양에서 만드는 라면과 과자를 판매하는 마트에 들러 보자. 뜨끈한 컵라면 한 그릇 먹으며 훈훈하게 목장 여행을 마무리해도 좋겠다.

NOTHING

바야흐로 자극이 넘치는 시절입니다. 온갖 미디어 매체와 영상들은 우리 눈에 들기 위해 더 강력한 자극으로 유혹합니다. 더 세거나 요란한 콘텐츠들이 매일 업로드되고 있죠.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간극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간극에서 느끼고 생각하고 선택을 하죠. 좋다, 재밌다, 신박하다, 의미 있다 등 어떤 형태로든 반응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을 내어놓는 일이 아주 신중해야 합니다. 자칫 알고리즘이라는 덫에 걸리면 나의 사고는 수렁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요. 옛날 드라마 보고 또 보고, 남들 먹고 또 먹는 모습 질리게 봐야 할지도 모르거든요.

기술은 예술과도 콜라보레이션 중입니다. 새로운 표현과 장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고 우리의 미감은 날로 상승하고 있죠. 디지털 기술과 결합한 미디어 아트는 우리의 감흥을 직접적으로 자극해오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의 대표 미디어 아티스트인 육근병 작가의 작업실에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양평에 있는 작업실은 늦가을의 정취를 잔뜩 품고 있었어요. 언제나 소년 같은 작가가 허허 웃으며 반겨주셨어요.



생각보다 깊고 아름다운 본질을 예술이 가르쳐주거든요. 그저 졸지 않는 담대한 마음으로 응시할 수 있으면 됩니다.

예술, 참 어렵게 느껴지죠. 특히 현대미술은 난해한 개념 미술이 많다 보니 우리는 예술 앞에 주눅 들기 일쑤입니다. 그렇다고 예술 향유를 포기할 수는 없죠. 생각보다 깊고 아름다운 본질을 예술이 가르쳐주거든요. 그저 졸지 않는 담대한 마음으로 응시할 수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바라보고 느낄 수 있으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실은 그다지 특별하지 않아요. 하지만 평범하고 느린 경험 속에 직관적인 문해력이 생겨납니다. 예술이 의미하는 어떤 것을 아로새길 수 있게 되지요.

육근병 작가의 'Nothing' 앞에 섰습니다. 디지털 미디어로 제작된 영상 작품입니다. 세월을 온몸으로 받아낸 거친 나무 사이로 눈이 내립니다. 하얀 세월 같은 눈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영상 맨 아래 타이머가 보입니다. 느리고 평화로운 풍경과 대비되며 시간이 빠르게 질주합니다. 꼭 우리 삶의 속도 같아요. 하루라는 시간은 긴데, 전 생애는 순간 같겠죠.

'Nothing' 은 단순히 '아무것도 없다'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통렬한 존재의 구체를 증거합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 나아가 사유로 발전시키는 힘, 우리가 지녀야 하는 힘이겠지요.

작가는 작품 속에 삶의 의미와 통찰을 깊이 있게 직조해놓았습니다. 우리는 가만한 응시로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예술로 시각적 문해력이 길러지지요.

괴테의 말처럼 삶은 속도보다 방향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너무 빠른 세상의 속도에 숨이 가쁘고 힘들 때도 많습니다. 이럴 땐 나만의 시각과 이해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정보와 범람하는 지식들을 나의 기준으로 습득하고 이해하는 것, 그리하여 앞으로 다가올 미래사회의 예측 불가능한 변수에 대비해두는 것, 어쩌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점점 세상은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는 가속이 붙어 참을성 없이 우리 곁을 스치고 휩휩 지나갑니다.

우리 모두 오늘도 우직하게 이 자리에서 현재를 지키며 미래를 응시합니다.

본질을 이해하려는 따뜻한 시선 속에 생의 비밀이 다 들어 있니까요.

행복은 페이 백이 아니라 페이 포워드

외국인들이 한국인에 대해 놀라워하는 것 중에 꼭 꼽히는 것이 있는데,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지키는 것과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지 않는 것, 쓰레기 분리수거와 음식을 분리배출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서 뭐가 그리 놀랄 일인가 싶지만, 사실 이런 나라는 찾기 힘들다. 몇 가지 다른 설명이 얼마든지 가능하겠지만 무엇보다 이웃과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이 제일 크다고 생각한다. 우리에게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생각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도 되도록 잘 사용하고 후세에게 잘 물려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꼭 자연스럽다. 그렇기에 이러한 가치를 공공의 합의를 통해 사회적 규칙으로 삼고 이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질타의 시선을 보내는 문화가 형성된 것이다.

그리고 보면 우리나라는 이런 사회적 안녕(Social Well-being)이 이 높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꽤 많은 나라가 아닌가 싶다. 그 많은 열강의 침략과 원치 않았던 전쟁, 기아와 가난, 외환위기, 그리고 당면한 코로나19까지 숱한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 남았고 심지어 위기를 겪기 전보다 더 강해졌다. 이런 나라가 지구상에 몇이나 될까? 오늘날 동서양을 막론하고 각국의 대학에서 한국학을 개설하고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학문적으로 탐구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이러한 특별함 때문이리라. 하나하나 개인으로는 나약하고 특별한 것 없을지라도 하나로 뭉치는 순간 우리는 강력해진다. 어쩌면 우리 민족의 의식 저 깊은 곳에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는 특별한 DNA가 있는지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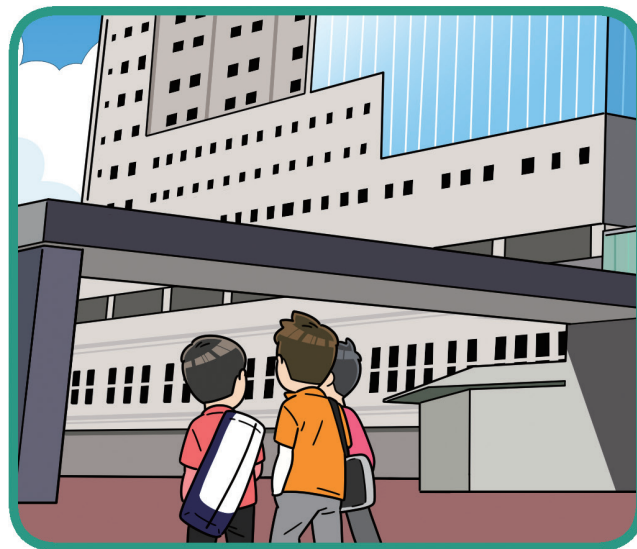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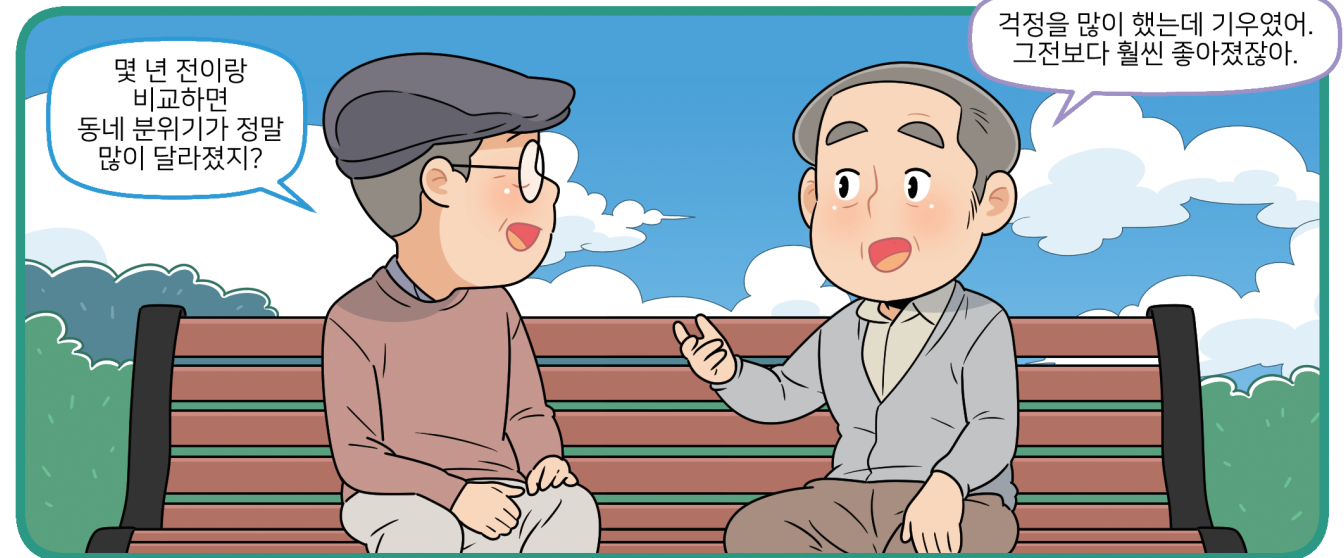
자기의 이익보다 타인의
안녕을 우선하는 것은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의 특징이다.



몇 년 전 비무장지대(DMZ) 부근에서 목함지뢰 폭발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나는 국방부로부터 건강한 군인정신에 관한 연구를 의뢰받아 연구원들과 함께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를 직접 방문하며 몇 달째 연구를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북한군이 매설해 놓은 목함지뢰가 터지는 바람에 전군에 비상이 걸리면서 진행 중이던 연구에도 제동이 걸렸다. 모든 부대의 외부인 방문이 금지된 것이다.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아 좌절하던 중에 당시 언론을 통해 드러난, 사고 정황과 사고를 겪었던 수색대대 소대원들이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보인 대처 행동과 동료애에 감동을 받은 나는 그들이야말로 훌륭한 군인정신의 표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들을 직접 만나는 것이 연구를 더 충실하게 해낼 수 있으리라 판단하였고, 국방부의 승인을 얻어 사건을 겪은 팀원들을 만나 심층면접을 할 수 있었다. 지뢰가 터지고 자욱한 연기 속에 겨우 시야가 확보되었을 때 팀장이던 중사가 본 것은 몇 미터 떨어진 철책에 날아가 거꾸로 매달린 부사관이었다고 했다. 폭발로 피범벅이 된 다리를 두 손으로 꼭 움켜쥐고 부하가 정신을 잃을까봐 수도 없이 이름을 불렀다는 그는, 그때 어서 부하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생각 밖에는 없었다고 한다. 생각해보라, 나무 뒤에 적이 숨어 자신들을 노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또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순간에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동료를 일으켜 세워 어떻게든 함께 살아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당시 의무병은 입대 전 여행에서 세월호 사건을 경험한 생존자 중 한 명이어서 나를 또 한 번 놀라게 했는데 힘든 외상 사건을 겪고 나서 그가 선택한 길은 입영 연기가 아니라 오히려 남들이 기피하는 가장 힘든다는 수색대원이었던 것이다. 세월호 사건 당시 더 많은 학생을 구하지 못한 것이 두고두고 후회가 되

어 후 다시 그런 위기상황이 닥칠 때 사람들을 더 잘 구하고 싶어서 의무병에 지원했다고 했다. 그 외에도 지뢰가 폭발했을 때 이를 놓치지 않고 열상감시장비(TOD)로 포착했던 TOD 관측병, 그리고 부상자들을 신고 평소에도 위험해 몹시 조심해서 다닌다는 꼬불꼬불 산길을 어떻게 운전해 내려왔는지 기억도 안 난다던 운전병까지, 이들은 모두 입대한 지 1년 남짓 된 스물한두 살의 대학생이었다. 한 팀에 속해 있던 하사관도 겨우 스물서너 살이었으며 팀을 이끈 중사도 갓 서른을 넘겼을 뿐이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안위보다 동료의 안전을 우선했고, 동료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직면한 위험에 맞서는 용기를 내었던 것이다. 이것은 군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모든 문화권을 통틀어 자기의 이익보다 타인의 안녕을 우선하는 것은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의 특징이다. 개인과 타인의 연결감과 일체감은 고귀한 정신을 지닌 덕을 갖춘 이들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역대 우리나라 흥행순위에서 수년째 1위를 지키고 있는 영화는 <명량>(2014)이다. 물론 이순신 장군은 세계 그 어떤 장군과 비교해도 자랑스러운 명장(名將)이자 지장(智將)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온갖 고초 끝에 마침내 해전을 승리로 마무리한 후 거북선 맨 아래 바닥 칸에서 노를 젓던 더러워진 손으로 주먹밥을 나눠 먹으며 “아, 근디... 나중에 후손들이 우리가 이렇게 개고생한 걸 알랑가 모르겠네”라며 땀국물이 푹푹 흐르는 얼굴로 빙긋이 웃던 평범한 수군(水軍)들이야말로 우리 역사의 진정한 숨은 주인공일 것이다. 우리 사회에 여전한 고질적인 문제들에 분개하다가도, 지구상의 그 어떤 나라보다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는 건 바로 이런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들 때문이다. 행복은 되돌려 받으려 하기보다, 오히려 기꺼이 내어줄 때 얻어진다.

우리 동네에 교정 시설 이 들어온대!



트렌디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교정공무원의 고민상담소

교정공무원으로 살면서 느낀 어려움, 스트레스가 있다면 익명으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사소한 고민이라도 월간 <교정>이 해결에 보탬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시면 따뜻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저는 SNS도 잘할 줄 모르고 회사만 열심히 다니며 일에만 집중하고 살았는데요. 어느 순간 돌아보니 동년배들에 비해 트렌드를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스마트폰을 갖고 있어도 잘 쓰지 않는 성격이거든요. 저만 모르는 재밌는 콘텐츠가 엄청 많은데 워낙 거리를 두고 살다 보니 쉽게 이해되지도 않고 일부러 시도하지 않으면 자주 손이 가지 않네요. 그래도 유행하는 건 따라잡고 싶은 욕심이 납니다. 어떻게 하면 트렌디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From. 기웃기웃



안녕하세요, '기웃기웃' 님. 반갑습니다.

트렌드에 대해 고민하시는군요! 저는 보내주신 사연을 읽으며 그만 너무 공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 역시 일 관제로, 요즘엔 뭐가 뜨고 뭐가 지는지 쉬지 않고 파악해야 하거든요. 트렌드 소식을 전해주는 뉴스레터를 몇 가지 구독하고, 남성과 여성 비율이 각각 높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하염없이 눈팅하며 같은 이슈에도 어떤 다른 반응을 보이는지 알아보려 애씁니다. 마치 눈치싸움 같아요. 트렌드에 뒤처지고 싶지 않다는 말은 조금은 슬프기도 합니다. 트렌드와 같은 속도로 달리거나 혹은 트렌드를 만드는 주체가 되는 것까지 바라지도 않는다는, 최소한 뒤처지고 싶진 않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보면 요즘 가장 핫한 노래가 뭘지 굳이 검색할 필요가 없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야 어딜 가든 노래가 제 귀에 들어왔으니까요. 바로 제가 그 중심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입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때 노래가 좋았어, 요즘 노래는 가사도 못 알아들겠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마침 얼마 전 재미있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기관이 세계 최대 음원 사이트 '스포티파이'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신곡을 가장 많이 찾아 듣는 나이는 24세이고 신곡을 더 이상 찾지 않는 나이는 33세 때부터라는 걸 알아냈답니다. 33세 이후론 그전까지 들은 음악을 평생에 걸쳐 반복해 듣는다고 해요. 그 시절을 추억하면서요.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며, '아이고,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며 살짝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이런 연구 결과에 굴복하기 싫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럴수록 더 새로운 걸 찾아다닐 테다! 선생님의 고민에 대한 답은, 실은 보내주신 글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 SNS를 잘할 줄 모른다 : 이제부터 합시다!
-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지 않는다 : 이제부터 활용합시다!

- 일부러 시도하지 않으면 손이 잘 안 간다 : 이제부터 일부러 시도합시다! 답은, 행동입니다. 트렌드에 뒤쳐진 옷 스타일이 고민이라면 백화점을 몇 바퀴 돌아보며 유난히 자주 보이는 색을, 무늬를, 스타일을 찾아봐야죠. 그게 올해의 유행일 테니까요. 인테리어가 고민이라면 가구 매장을 여러 곳 돌고, 인테리어 앱도 깔아보고요. 이 동네의 맛집이 궁금하다면 여기저기 물어보고, 인터넷 검색도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하다 보면 뭔가 나올 거예요.

우선 SNS부터 시작할까요? 쌍방향 소통이 부담스러울 땐, 일정한 방향으로만 합시다. 눈팅만 하는 거죠. 휴대폰에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앱을 깔고, 돋보기 모양의 검색 아이콘을 누르면 최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주제가 주르륵 뜹니다. 하나씩 클릭해봅니다. SNS란 다양한 지역·연령·성별·문화적 배경의 사람이 모인 곳이라 어떤 건 알아들겠고 어떤 건 뭘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계속 봅니다. 그러다 보면 재미있는 것, 좀 더 알고 싶은 것이 생깁니다. 개봉한 줄도 몰랐던 영화 이야기도 발견하고, 얼마 전 새로 출시한 자동차 리뷰도 읽습니다. 누군가는 정치 이야기로 입씨름하고, 또 누군가는 방탄소년단(BTS) 이야기만 합니다.

그 외중에, 같은 주제라도 글을 재밌게 쓰는 사람이 눈에 띌 때가 있어요. 호기심이 생기면 팔로우를 합니다. 그렇게 한 명 두 명 팔로우하면 SNS에 접속할 때마다 그들의 이야기가 나의 계정에 하나둘씩 모입니다. 이걸 '타임라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 더해, 언론사 몇 곳과 좋아하는 패션 브랜드, 연예인, 출판사 계정 같은 걸 내키는 대로 팔로우합니다. 뭐, 좀 구경하다 지랄 안 맞는다 싶으면 팔로우를 취소하면 되고요. 그렇게 저의 타임라인을 제 취향에 맞게 구성하고, 계속 조금씩 바꿔 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트렌드를 자연스럽게 알아갑니다.

어떻습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해보시죠.



겨울의 맛

상큼달콤한 귤잼과 귤청



“겨울 오면 이불 속에서 손이 노래지도록 귤이나 까먹고 싶다!” 추운 날씨에 접어들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과일, 귤. 늘상 먹는 생과의 맛 말고 다른 방법으로 즐겨볼 수 있을까? 간단히 조리하면 여러 음식과 곁들여 먹기도 좋고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다. 양이 너무 많아 처치가 곤란할 때도 잼이나 청을 만들면 오래 보관할 수 있어 겨울이 지난 뒤에도 즐기기가 좋다.



재료

귤과 설탕의 1:1 비율만이 중요하므로 정해진 분량은 없다. 사용하고자 하는 만큼의 귤, 귤의 양과 같은 양의 설탕을 준비한다.



조리 순서

귤청과 귤잼의 공통 준비과정

- ① 귤잼과 귤청을 보관할 유리병을 소독해 준비한다.
- ② 귤 껍질을 모두 제거한다.
* 귤 껍질을 식초나 베이킹소다로 잘 씻어 함께 갈아 사용해도 좋다.

귤청 만드는 법

- ① 손가락으로 귤을 적당히 으깨고 설탕을 넣어 잘 섞는다.
* 레몬즙을 5방울 정도 넣으면 좀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다.
- ② 잘 섞은 내용물을 유리병에 담고 그 위에 설탕을 조금 더 넣는다.
- ③ 하루 정도 숙성시킨 뒤부터 먹을 수 있으며 남은 것은 냉장보관한다.
- ④ 따뜻한 물에 잘 녹이면 맛있는 귤차 완성.

귤잼 만드는 법

- ① 껍질 깬 귤을 적당히 으갠 뒤 설탕과 섞는다.
* 끓이는 동안 형태가 무너지므로 잘게 썰지 않아도 좋다.
- ② 냄비에 넣고 30분 정도 끓인다.
- ③ 끓기 시작하면 계속 저어주고 줄어들면 중불로 낮춰 계속 짓는다.
* 끓으면 설탕물이 튀므로 주의한다.
- ④ 되직한 농도로 변하면 귤잼 완성!



Tip

귤의 대표 성분인 비타민 C는 몸속 유해한 활성산소를 없애는 데 도움을 주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 하루 2개만 섭취해도 일일 권장량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으니 겨울철에 마음껏 즐기자.

귤은 10월부터 나오는 극조생종과 12월부터 나오는 조생종으로 나뉘는데 극조생종은 큰 것이, 조생종은 작은 것이 맛있다.



고전이 디지털 시대에 연착륙할 때

<서치> **VS** <그녀>

시나브로 틱 밀까지 바짝 다가온 디지털의 시대. 구식(舊式)이란
직물을 디지털로 꿰어 만든 하이브리드식 영화를 소개한다.

<서치>



출근길 금이야 옥이야 키운 딸 마고 김(미셸 라)이 실종된다. 아버지 데이비드 김(존 조)은 딸의 아이폰과 맥북을 뒤져가며 그녀의 행방을 쫓는다. PC 속 사진, 일기, SNS 흔적에서 발견되는 의문스러운 증거들은 미궁에 빠진 실종 사건의 진실을 서서히 가리키는데...

● 장르: 드라마, 범죄 시간: 101분 감독: 아니시 차간티 출연: 존 조, 데브라 메싱

제작비 9억 원으로 극장 수입만 832억 원을 벌어들인 영화 <서치>. 업계식 수치로 환산하면 무려 85.7배의 수익. 참고로 한국 영화진흥위원회는 30억 원 이하의 제작비는 '상업영화' 통계에 넣지 않는다. 이토록 적은 제작비는 PC 화면 위주로 영화를 구성한 설정이 있어 가능했다. 18세기경 설록 흠스와 왓슨이 고관절이 안병하지 못하도록 뛰어다닐 동안 데이비드 김은 반경 15cm 손목 액션만으로 수사망을 좁혀간다. 마우스 하나로 사건의 증거를 찾아 정확을 파악하고, 키보드 하나로 증인과 용의자를 구별해간다. 딸의 실종을 감추려는 유력 용의자의 심리는 SNS를 통해 추적한다. 탐정의 깊고 넓은 상식은 인터넷 정보에 미치지 못하고, 그의 뛰어난 추리력은 SNS에 널린 실시간 증거에 초라해진다. 디지털 시대 속 소통망이 데이비드 김에게 '감시망'이 된 것이다. 이젠 모두가 설록이 될 수 있는 디지털 시대에서 더는 죄짓고 살 수 없다는 훈훈한 교훈은 덤이다. 혹여 유려한 언변과 뛰어난 사고력으로 마음먹고 사기를 치더라도 소용없다. 최소한 설록 흠스 시대의 범죄자보다 5.7배 이상은 더 똑똑해야 그럴싸한 알리바이를 만들 수 있을 테니 말이다.

디지털 시대에 연착륙한 21세기형 수사장면 BEST 3



#1 두꺼운 수첩이나 뛰어난 기억력 없이 PC로 간편히 수사하는 장면
- 데이비드 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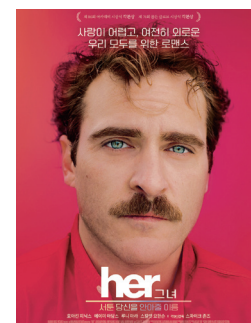


#2 고전소설 속 탐정의 추리력은 필요 없다. 딸의 SNS를 통해 피해자의 심리 상태, 알리바이 등을 검증하는 장면
- 데이비드 김



#3 동영상 채팅창에 글을 쓴 딸의 주변 인물들 한 명씩 수사해나간다. 손목 액션만으로 경찰의 수사력을 넘어서는 장면
- 데이비드 김

<그녀>



출근길 대필 작가인 테오도르(호아킨 피닉스)는 아내와 별거 중이다. 타인의 마음을 글로 전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은 외롭고 공허하다. 우연히 인공 지능 운영체제인 '사만다'(스칼릿 조핸슨)를 만나게 되고 경청과 공감에 유별난 재능을 보이는 사만다에게 테오도르는 사랑을 느낀다.

● 장르: 드라마 시간: 123분 감독: 스파이크 존즈 출연: 호아킨 피닉스, 에이미 애덤스, 스칼릿 조핸슨(목소리)

고전소설 속 로미오가 밤이고 낮이고 줄리엣 집을 찾아와 창문을 열 어달라며 소리를 질러대는 통에 밤잠 이루지 못했을 이웃 주민, *오셀로의 공허한 의처증 때문에 수명이 절반은 줄었던 데스데모나까지. 이들에게 PC와 스마트폰이 있었다면 비극적 소설은 쓰이지 않았을 것이다. 영화 <그녀>는 이러한 흥분과 집착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이야기로 풀어냈다. 아내와 별거 중인 테오도르(호아킨 피닉스)는 사무치는 외로움을 고성능 CPU로 구동하는 인공지능 연애 소프트웨어에 의존한다. 소프트웨어의 이름은 사만다(스칼릿 조핸슨), 테오도르는 매일 사만다가 보고 싶다며 집 앞에 찾아가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하는 고성능가를 할 필요도, 내 사랑 사만다가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우는지 걱정할 필요도 없다. 차라리 '환경 설정'에서 '외도 금지' 기능을 활성화해도 된다. 덕분에 이웃들은 드뷔시의 '달빛'을 들으며 속 면할 수 있다. 비극적 상황을 절반은 씩씩 잘라낸 디지털 시대 속 테오도르, 과연 고성능 연애 소프트웨어 사만다와 진정한 사랑에 도달할 수 있을까?

*오셀로: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중 하나. 이아고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연인 데스데모나를 살해하는 오셀로의 비극에 관한 이야기.

로미오와 오셀로가 겪었을 최애템 BEST 3



#1 스마트폰
언제든 연락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있었다면 임 향한 애달픈 마음 달래기에 이만한 효자 아이템이 또 있을까.



#2 중부고속도로
서울에서 대전까지 167km, 내님 혹시 만났다고 만나 궁금할 때, 아이고 말만 믿지 말고 중부 타고 쏘시길. 어지간한 곳 2시간 컷 가능!



#3 사만다
경청과 공감의 아이콘, 시공을 초월한 인생의 동반자를 원한다면 고민할 필요 없이.



겨울철 건강 관리에 비상!

독감과 감기, 코로나19 어떻게 구분할까?

한동안 잠잠한 듯싶다가 다시 대유행에 접어든 코로나19. 발열과 기침이 대표적인 증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감기와 독감, 폐렴과도 동일한 증상이다. 단순 증상만으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질병을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힘들겠지만 몇 가지 사실을 알고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취하는 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비슷하지만 알고 보면

다른 증상들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종류는 200여 개 이상에 달한다. 이 때문에 특정 예방 백신이 없고 일주일 정도 휴식을 잘 취하면 낫는다. 가장 흔한 원인은 리노바이러스로, 코나 목을 통해 유입돼 감염되고 상부 호흡기계에 증상을 일으킨다. 감기 바이러스를 가진 환자에서 나온 비말이 공기 중에 퍼져 있다가 전파된다. 호흡기로도 감염되지만 감기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이 묻은 물건을 만진 손으로 코나 입을 만졌을 때도 감염될 수 있다. 실내 생활 시간이 늘어나는 가을이나 겨울에 감기에 자주 걸리는 것이 그런 이유다. 재채기나 코막힘, 콧물, 미열, 근육통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지만 특별한 치료 없이도 치유되는 것이 감기의 특징이다.

인플루엔자라고도 부르는 독감은 주로 11월부터 시작해 날씨가 따뜻해지는 4월 사이 유행한다.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 종류는 A형, B형으로 나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감기와 다르며 기침과 콧물, 인후통 등의 증상은 감기와 유사하지만 증상의 정도가 심하고 두통과 오한, 발열, 근육통 등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만큼 강하게 나타난다. 고열 증상이 갑작스럽게 시작되는 질환이라는 점이 서서히 열이 오르는 감기와 다르다. 전염성이 높고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하는 사례도 있으나 예방 접종을 맞으면 사전에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

감기는 콧물, 코막힘과 인후통이 주 증상이기에 전신 증상이 두드러지는 독감과 차이가 비교적 분명하다. 독감에서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때는 전신 증상이 잦아들고 호전될 때임을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고열이 지속되는 동시에 기침과 호흡곤란 같은 증상을 보인다면 폐렴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도 축농증이나 중이염 등 합병증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단순 독감일 경우는 며칠 사이 호전된다.



손 잘 씻고, 기침은 소매에,

기분을 잘 지킬 것

폐에 염증이 생기는 폐렴은 초기에는 감기와 비슷해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호흡 곤란을 유발하기도 하고 냄새가 있는 누런 가래와 피로감이 이어지는 것이 증상이다. 바이러스 외에 곰팡이나 세균에 의해 폐렴이 발생하기도 한다. 염증 물질이 가래로 배출되거나 호흡할 때 통증을 느낄 수도 있고 구토와 같은 소화기 증상도 유발할 수 있다. 두통과 피로감, 근육통 등 전신



이 질환들의 공통적인 예방법은 손을 자주 씻고 기침할 때 소매로 가리는 에티켓을 잘 지키는 것이다.

에서 증상이 발현되고 염증으로 인해 발열이나 오한을 호소하게 된다.

폐렴과 독감 모두 백신 접종으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예방 주사를 맞더라도 감염 확률이 0%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설령 감염되더라도 비교적 가볍게 앓고 지나갈 수 있으니 특히 취약 계층이라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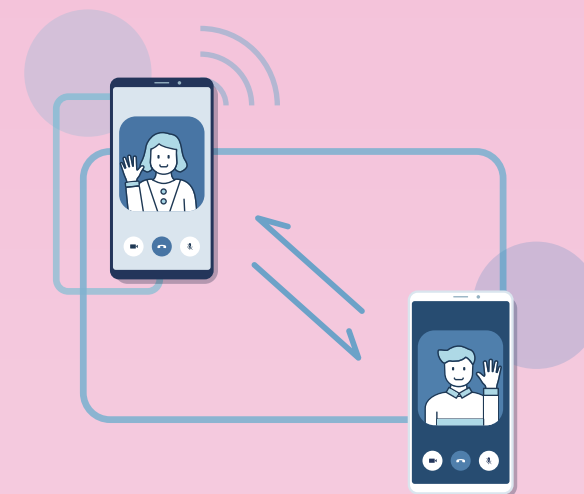
코로나19는 잘 알려져 있듯 2주 정도 잠복기를 거친 후 기침과 가래, 고열, 근육통 등이 발현된다. 독감과 비슷한 증상이지만 독감과 다르게 호흡 곤란이나 미각을 상실한다. 그러나 요즘은 무증상 감염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나 더욱 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단순 감기나 독감으로 헛갈리기 쉽지만 코로나19는 독감에서 볼 수 있는 고열보다는 37.5도 이상의 미열이 흔하고 오한이 급작스럽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기에 의한 콧물이나 재채기는 코로나19에 없는 증상이고 기침과 근육통, 피로감을 호소한다면 코로나19를 의심해봐야 한다.

겨울철에 감기나 독감이 흔한 이유는 공기가 차고 건조해지는 때, 콧속 점막이 말라 바이러스의 침투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감기, 독감, 코로나19 모두 비말에 의해 감염 확률이 높아지므로 이 질환들의 공통적인 예방법은 손을 자주 씻고 기침할 때 소매로 가리는 에티켓을 잘 지키는 것이다.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이후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의 중요성이 널리 알려지자 감기나 안과 질환 환자가 크게 줄었다는 소식이 이를 증명한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새로운 트렌드들

2021 트렌드 내다보기

코로나19가 휘몰아친 2020년, 사람들은 점차 마스크와 외부활동을 최소화한 생활에 적응해가고 있다. 한없이 가라앉을 것 같던 세계경제는 전문가들의 예상과 다르게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사람들은 이번 대위기에도 저마다의 생존전략을 찾아내는 모양새다. 그런 움직임들이 모여 새해의 트렌드를 만들어간다. 2021년에는 어떤 문화가 새롭게 자리 잡을 것인지 기대해보자.



1 With 코로나19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각국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 이슈가 앞다퉈 나오고 있지만 새해에도 당분간 비대면 위주의 생활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19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되더라도 이전처럼 자유로운 대면 생활로 되돌아가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선이다. 타인의 간섭이 없는 편리함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다시 불편과 위험을 부담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이런 흐름은 온라인과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이 생활과 밀접해지면서 지속되기는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히 빨라졌다. 여기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 2021년의 전망에서 코로나19를 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유연하게 대처해야 함을 인정하고 뜻대로 되지 않는 사회 흐름에 잘 올라탈 수 있어야 한다. 몸을 사리는 것도 좋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다양한 도전을 해보는 자세도 필요하다. 이러한 조언은 비단 사업이나 마케팅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을 다니는 일반인들에게도 유용하다. 언제까지고 취미활동도, 개인적인 생활도 하지 않은 채로 살 수는 없잖은가? 다른 재미거리를 찾고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한다.

2 MZ세대 영향력으로 소비시장 넓어지고 달라질 것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 출생자인 MZ세대는 기성세대보다 월등히 빠르게 이런 변화에 정착하고 자유자재로 즐기고 있다. 새해에도 이런 성장은 계속되어 여러 업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대가 될 전망이다. 이들은 원하는 것을 얻는 소비에 거침없고 유행의 중심에 있어 많은 기업의 타깃이 되는 중요한 소비층이다. 중고 시장에도 거부감이 없고, 오히려 애용하는 이 세대를 통해 중고 재테크가 활성화되고 당근마켓 등이 크게 성장하면서 새로운 시장이 탄생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단순히 '쓰지 않는 물건을 거래한다'의 수준을 넘어 취향까지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유통업계에는 새로운 트렌드가 형성되는 중이다.

3 밈(Meme)의 빠른 진화, 재미와 속도감을 추구하다

SNS에서 주목받은 콘텐츠가 크게 유행하고 네티즌이 직접 제2, 3차 후속 콘텐츠를 만들며 즐기는 유행을 이르는 밈(Meme). 새로운 흥밋거리로 소비자의 시선을 잡아끄는 밈은 길고 꾸준히 지속되며 언급되기도 하지만 빠르게 끊어올라 금세식은 경우도 흔하다. 어떤 밈이 새롭게 뜨고 지는지 관찰해야 하는 이유는 놀이로서만 즐길 것이 아니라 시장을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어서다. 실제로 농심은 가수 비와 '깡'이 밈으로 유행할 때 네티즌 사이에서 유행하던 "농심은 새우깡 모델로 비를 섭외하라!"는 장난 같은 요구를 흘려들지 않았고 실제로 광고모델로 섭외, 큰 호응을 받았다. 이런 사례는 앞으로 더 많이 등장할 것이고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할 것이다.

4 마음의 거리 좁히는 노력 강화될 것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온라인, 비대면인 덕분에 흥하는 업계가 있는가 하면 대면하고 이웃하며 온기를 느낄 수 있어 성공하는 분야도 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이 상황을 모두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인을 주면서 감성에 접근하는 콘텐츠나 프로그램이 많이 등장할 전망이다. 실제로 손길이 닿지는 않더라도 느슨한 연대를 통해 마음의 거리를 최소화할 방법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이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이다. 마음을 건드리는 전략은 대상이 누구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강력한 비기가 된다.

나의 파프리카 농원

이런 여름이었던 것 같다. 플라스틱 상자에 담아두었던 흙에서 무언지 모를 새싹들이 올라왔다. 아내에게 물어보니 마트에서 식재료로 구입한 파프리카 씨라고 한다. 딸아이가 장난삼아 뿌려놓은 파프리카 씨앗이 싹을 틔웠고 어항 정도 크기의 플라스틱 상자 속엔 온통 새싹들로 가득했다. 흙뿌리듯 던져놓은 씨앗이 발아를 해 싹을 틔우다니 놀라웠다. 이 새싹들을 제대로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작은 상자 속 새싹들은 위치에 따라 제각기 다른 성장을 보였다. 아마도 햇볕을 받는 위치에 따른 차이가 아닐까 싶다. 싹들이 자라면서 상자는 비좁아졌고, 그럴 때마다 난 어리고 약한 싹들을 뽑아주었다. 식물의 세계에도 약육강식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 같아 달갑지 않았지만 상자가 비좁으니 어쩔 수가 없었다. 그렇게 성장이

코로나19로 세상이 어지러운 시기다. 코로나19는 이동의 자유를 제한했고 우리는 집 안에 갇힌 채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마스크에서도 이런 시기에는 가까운 거리에서 필요한 것들을 얻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즉 쇼핑을 하더라도 중심지의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보다는 동네 상가의 가게를 이용하고 원거리 여행이나 외출보다는 집 근처 소공원이나 집 안의 화단에서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라는 것이다. 나에게도 다행히도 나만의 파프리카 농원이 있다. 아파트 발코니에 화분과 스티로폼, 플라스틱 상자에 심어놓은 파프리카들이다.

터딘 싹들은 거름이 되었다. 발코니 햇볕이 좋아서인지 싹들은 잘 자랐고 나는 이 신기한 현상에 더욱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부었다.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는 새로운 화분과 상자에 옮겨 밀도를 낮춰주었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꽃이 피기 시작했다. 하얀색 꽃이 고추 꽃과 비슷했다. 꽃이 떨어진 자리엔 드디어 열매가 맺혔다. 처음 경험하는 파프리카 농사는 나에게 많은 즐거움을 안겨주었다. 파프리카는 기대 이상으로 잘 자라주었다. 총 아홉 그루가 살아 남아 11월 말의 차가워진 날씨에도 쭉쭉 크고 있다. 처음에 싹을 틔웠던 상자에는 두 그루가 남아 있고 나머지 일곱 그루는 다른 화분에 옮겨 심었다. 그루마다 10여 개씩의 파프리카 열매가 영글어가고 있다. 아직은 초록색 열매라 파프리카라기보다는 피망



마트에서 구입한 파프리카의 싹을 뿌렸더니 신기하게도 싹을 틔워 열매까지 주렁주렁 열렸다.


에 가까운 모습이지만 아이들 주먹만 한 크기의 열매를 볼 때면 생명의 경이로움에 무한한 감동을 느낀다. 파프리카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베란다에 '나의 파프리카 농원'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이름이 싹 마음에 든다. 파프리카 농원에는 파프리카뿐만 아니라 알로에 두 포기과 이름 모를 나무 두 그루가 섞여 있다. 얼마 전부터 나는 퇴근하고 나면 파프리카 농원에서 시간을 보내며 소일하고 있다. 휴일에도 일어나자마자 베란다부터 찾게 된다. 거실 문을 활짝 열어둔 채 '나의 파프리카 농원'을 한두 시간 동안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다. 밤에는 발코니 등불에 반짝이는 식물들, 낮에는 햇살에 빛나는 초록의 광채를 느끼면서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으면 그들의 대화가 들리는 듯하다. 물을 주고

나면 금세 생기가 도는 것이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해지는 사람 같은 모습이다. 물아일체(物我一體)라는 말처럼 파프리카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기도 한다. 이런 게 농부의 마음일까? 날씨는 점점 차가워져가고 발코니의 온도도 떨어져 파프리카를 바라보기가 미안해진다. 화분과 상자들을 거실로 들여놓을까도 생각했지만 가족의 반대로 들이지 못했다. 발코니 창이 추위를 막아주긴 하겠지만 부족하다는 마음에 나는 큰 비닐봉지를 구해 식물들에게 씌워주기로 했다. 특히 밤에는 이불을 덮어주듯 반드시 비닐을 씌워두었다. 녀석들이 추위에 떨까봐 안달하는 걸 보면 아무래도 식물들과 교감하는 능력이 생긴 것은 아닐까. 지금까지 나의 파프리카들은 건강한 편이지만 노랗고 빨간 파프리카 열매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아직은 색깔이 바뀔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인내심을 가지고 이들을 돌볼 생각이 다. 완숙한 열매를 보고 싶다는 호기심도 있겠지만 이들과 교감한 인간으로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자랄 수 있도록 보살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즐거움이기도 하다. 코로나19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여전히 많은 생명들로 가득하다. 그리고 나는 이 파프리카를 보면서 희망을 품고 생명의 위대함을 실감하고 있다.



속죄의 열매 새날의 꿈

건실한 직장생활을 마치고 퇴직했다. 인생의 황혼기를 멋지게 마무리하고 싶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나에게서 우울증을 앓는 아내가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장강박증과 편집성 인격장애로 발전하여 증세가 점점 더 심해지더니 어느 날 졸혼을 요구했다. 연금은 고스란히 아내의 몫이 되었다. 혼자가 된 나의 삶은 궁핍해졌다.

 '희망의 백일장'은 수용자들이 반성하는 마음을 담아 출소 후 뚝뚝하고 희망적인 삶을 살겠다는 다짐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참회와 교화의 시간을 거쳐 사회로 돌아갈 수용자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정부 투자기관에서 비교적 건실하게 직장생활을 했다고 자부한다. 인생의 위기는 퇴직 후에 들이닥쳤다. 지난 12년간 우울증을 앓고 있는 아내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의 우울증은 저장강박증과 편집성 인격장애로 발전하여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저장강박증이란 어떤 물건이든지 그것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저장해 두어야 직성이 풀리는 강박장애를 의미한다. 단순히 취미로 물건을 모으는 것과는 다르다. 저장강박증이 있는 사람이 물건을 모으지 못하게 되면 심한 경우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편집성 인격장애는 타인의 행동을 의심하고, 타인의 의도를 불신하는 증세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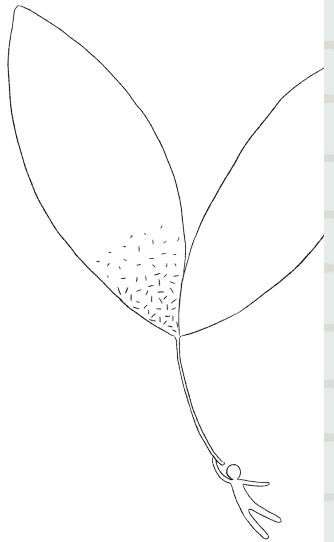
아내는 병이 깊어지면서 지나칠 정도로 자기중심적으로 변해갔다. 철따라 불필요한 의류와 주방기구들을 바꾸고 사들이는 쇼핑 중독에 빠져들었다. 그런데다 시도 때도 없이 지인들과 여행하기를 좋아해 그에 따른 지출은 늘어만 갔다. 이러한 아내는 급기야 졸혼을 요구하며 가까운 곳으로 별거에 들어갔다. 설상가상으로 월마다 지급되는 연금도 아내가 독차지하게 되었다. 홀로 남은 나의 생활은 궁핍하기 이를 데 없었다. 대출금을 갚느라, 생활비를 마련하느라 지니고 있던 반지와 자동차까지 팔아 보냈으나 한계에 부딪혔다.

지난 3월이었다. 부족한 생활비를 벌기 위해 강사직 일자리를 찾아보았으나, 코로나19 사태로 각급 학교 학사 일정까지 마비되는 바람에 꿈을 이룰 수가 없었다. 절박한 심정에 아르바이트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뛰어들었던 일이 그만 사기죄로 걸려들어 구속되고 말았다.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되어 수형생활을 하게 되었다. 아내에 대한 분노와 증오심을 누그러뜨릴 수가 없었다. 내 인생이 황혼에 접어들면서 뜻하지 않게 만신창이가 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형제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다. 나를 도와줄 만한 형편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 인생이 황혼에 접어들면서 뜻하지 않게 만신창이가 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무엇보다 내가 가담한 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미안하고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비록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일지라도 변명이 될 수가 없었다. 깊이 뉘우치며 속죄하고자 다짐하고 또 다짐했지만 실패한 인생이라는 좌절감은 어쩔 수가 없었다. 60여 년을 살아왔는데 삶의 의미가 물거품처럼 사라져가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삶의 돌파구를 찾지 못해 나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을 어렵듯이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지금까지 살아온 존엄한 나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스스로에게 고통을 주고 학대할 수가 없었다.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건 새날의 꿈 덕분이다. 나의 잘못된 행위를 속죄하면서 깨달은 것이다. 아내에 대한 분노와 증오심도 견어낼 수 있었다. 속죄의 열매가 알차게 영글어가고 있었으니 그것은 아내에 대한 사랑이었다. 지난 12년간 어려운 고비 속에서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내를 끝까지 지켜온 사랑. 언젠가 출소하면 '사랑'이 새날을 알리는 여명의 빛으로 나를 응원해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속죄의 열매가 '전회위복'의 꿈으로 변하면서 새 하늘, 새 땅을 내디딜 그날이 저만치에서 걸어오고 있는 듯하다.



‘제1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수용자의 처우와 교정교화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1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이는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교정의 방향과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다.



제1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

법무부는 수용자들의 인권보호와 교정행정 혁신을 위한 ‘제1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형집행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5년마다 교정행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기본계획의 근거 법률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기본계획에 따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변화를 향한 믿음, 함께 만들어가는 국민안전’을 비전으로 ‘인권중심, 다양성 존중, 국민신뢰, 조직혁신, 스마트교정’의 다섯 가지 정책 목표를 향해 정진할 예정이다.

다섯 가지 정책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고 시설의 현대화 및 의료처우 증진,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방안 마련 등 수용자의 인권이 실질적

으로 보장될 수 있는 수용환경을 조성한다.

둘째, 과학적인 분류처우와 수용자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성을 존중하고, 수용자가 원만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셋째, 폐쇄적인 교정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외부 모니터링과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교정정책에 대한 개방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해 예측 가능한 교정행정을 구현한다.

넷째, 교정행정의 목표 달성에 적합한 조직체계를 재정립하고, 기능과 역할에 따른 인력 배치 등 능동적인 조직환경을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추어 첨단 정보기술(IT)을 접목한 스마트교정시설 건립,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시설안전을 확보하고 수용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

11개 부처와 범정부 협의체 구성

교정본부는 그동안 다양한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개발·수행하고 인권 친화적인 교정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관계 부처 간 협력 부족 등으로 정책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따라 부처 간 협력을 통한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법원행정처, 대검찰청 등 11개 부처와의 협의체를 구성했다. 지난 11월 6일에는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고기영 당시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관계 기관의 담당자가 참여해 협의체 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의에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 및 추진

기본계획에 따라 ‘인권중심, 다양성 존중, 국민신뢰, 조직혁신, 스마트교정’의 다섯 가지 정책목표를 향해 정진할 예정이다.

목표를 발표하고, 적정 규모의 교정시설 유지, 교도작업 활성화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확충방안, 인성교육 및 사회적용 프로그램 추진방안, 수용자 인권보호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 교정사고 통계분석 및 예방방지에 필요한 사항, 교정공무원 교정교화 역량강화 방안 등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아울러 부처별로 정책 추진과제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논의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동시에 향후 관계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회의가 진행됐다.

고기영 당시 법무부 차관은 협의체 회의를 통해 “수용자가 올바른 교정교화를 통해 사회에 복귀한 후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이런 선순환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뿐 아니라 일반 행정부처의 도움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더 나은 교정을 만들기 위해 함께 협의해보자는 의미에서 각 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를 밝히며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법무부는 ‘제1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교정공무원·수용자·국민이 함께 가치를 공유하며 교정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완화경비 교정시설의 표준 모델, 강원북부교도소 개청

지난 11월 20일, 강원북부교도소 개청식 행사가 개최되었다. 순수 완화경비 교정시설로 운영되는 강원북부교도소는 다양한 사회적 처우를 통해 수형자의 자활의지를 북돋아 재범방지 및 수형자의 성공적 사회복귀를 돕고 인권 중심의 교정현장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강원북부교도소가 개청하기까지 따뜻한 마음으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속초 시민들과 함께한 개청식 현장을 소개한다.



강원북부교도소 개청

외설악의 울산바위가 병풍처럼 둘러싸고 동해의 쪽빛 바다가 아름다운 속초 장사동에 '강원북부교도소'가 개청했다. 강원북부교도소는 대한민국 54번째 교정시설로, 강원북부 지역인 속초·양양·고성 지역에 교정시설이 없어 구속 피고인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청했다. 이를 축하하기 위해 지난 11월 20일, 강원북부교도소 개청식 행사가 개최되었다.

오전 11시가 되자, 내빈들이 행사장에 들어서고 본격적인 개청식이 시작됐다. 이번 개청식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영희 교정본부장과 김성호 강원도행정부지사, 김철수 속초시장 등 한자리에 모이기 쉽지 않은 귀빈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내빈 소개 뒤에 이어진 강원북부교도소 김학봉 소장의 경과보고로 강원북부교도소의 탄생 과정을 알 수 있었다. 2003년 신설 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 현재의 부지(속초시 장사동 산33번지)를 최적으로 선정한 뒤 2014년 수용인원 500명 규모의 설계를 완료한 강원북부교도소는 2016년 7월 공사에 착공해 2020년 4월, 비로소 준공에 이르게 되었다.

이후 7월 15일, 운영지원작업 수형자 40명으로 수용업무를 개시하였고, 8월 20일에는 속초 경찰서 유치수용자 18명을 인수



함으로써 본격적인 교정행정 업무를 시작하였다. 드디어 강원도 북부에 교정시설이 문을 연 것이다. 강원북부교도소 김학봉 소장은 “변화를 향한 믿음, 함께 만들어가는 국민안전”이라는 교정행정 비전을 바탕으로 인권이 존중받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교정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개청 소감을 밝혔다.

믿음과 상생으로 태어난 '강원북부교도소'

개청식에서는 홍보 동영상을 통해 '완화경비 교정시설의 표준 모델,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는 주민 친화형 교도소'라는 특징을 지닌 강원북부교도소를 소개했다. 14만1000㎡ 부지에 최고 높이가 3층을 넘지 않는 저층 분산형 구조로 아름다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강원북부교도소는 환경을 고려해 지열 에너지를 사용하고 물샷틈없는 최첨단 전자경비시스템으로 교정시설에 대한 거부감을 줄였다. 강원북부교도소는 형기 10년 이하의 수용자를 위한 완화경비 교정시설로, 미결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용자들이 자조적 노력을 통해 변화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한다. 일례로, 식사 시간이 되면 수용거실 대신 희망 광장에 모여 자율배식을 하고 보행 시에도 일정 거리까지는 직원 계호 없이 이동이 가능하다. 강원북부교도소는 수용자의 처우 향상과 인권 보호 측면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며, 일반경비시설에 비해 처우 차별성을 강화한 표준화된 경비등급 모델 운영으로 한층 발전된 교정행정을 그려나갈 계획이다. 지역 주민들과 상생하는 교정시설이라는 것도 강원북부교도소의 특징 중 하나이다. 체육관과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에서 지역 주민들이 마음 편히 운동하고 쉬어갈 수 있도록 교도소 문을 활짝 열고, 교도소 직원들로 구성된 봉사단이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지역 주민과 함께 어울려 소통하는 주민 친화적 교정시설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개청식에 함께 자리한 속초 시민들은 교정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니라 수용자 교정교화를 통해 사회안전을 확보하는 중요한 기관이라는 인식으로 강원북부교도소의 개청을 따뜻한 마음으로 축하했다.

인권 중심의 교정현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홍보 영상을 시청한 뒤에는 관서기 수여식이 이어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김학봉 소장에게 관서기를 수여하자, 김학봉 소장이 무대 위에서 관서기를 힘차게 흔들며 강원북부교도소의 개청을 선포했다. 이어 강원북부교도소가 개청하는 데 공로를 세운 개청 유공자에게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원북부교도소를 개청하는 데 크게 기여한 담당자들에게 표창장이 주어지자, 장내에 커다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추미애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법무부의 오랜 숙원인 과밀수용 해소와 노후 교정시설 개선을 위해 교정시설의 신축과 이전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다”라며 속초 시민과 지역사회의 따뜻한 협조와 지원 아래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된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그 어떤 곳보다 교정시설 안에서 인권존중이 이루어져 수용자들이 자발적인 참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완화경비 교정시설의 표준모델로서 강원북부교도소가 인권 중심의 교정 현장을 더욱 앞당겨 실현하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도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를 위해 따뜻한 교정, 인권 중심의 교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개청식이 모두 끝난 뒤에는 야외에서 개청을 축하하기 위한 부대행사가 열렸다. 내외빈이 함께한 티프 커팅식과 현판 제막식에 이어 기념 식수 시삽 행사가 이어졌다. 무럭무럭 자라는 나무처럼 강원북부교도소가 힘차게 전진해 나가길 기대한다.

남성 마약 사용자들의 교정시설 생활체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 Colaizzi의 체험적 현상학적 연구접근 —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 방법
IV. 연구 결과
V. 결론

* 교정연구 제30권 제호 통권 제86호에 실린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하였음
** 조선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 경임교수, 제1저자(hml0716@naver.com).
*** 광주교도소 보안과 심리치료팀, 공동저자(sappurisa@naver.com).
**** 조선대학교 정치학과 시간강사, 공동저자(rjs0321@naver.com).
▶ 접수일(2020.4.5) 심사일(2020.4.14.) 수정일(2020.4.20.) 게재확정일(2020.4.24.)

1) 역기능

(1) 새로운 마약세계 학습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에 의하면 교정시설은 새로운 마약세계를 학습할 수 있는 곳이다. 정보교환을 통해 마약구매는 물론 판로까지 알 수 있었고 교도소 내에서 맺어진 관계는 새로운 마약세계 진입의 통로가 되기도 하였다. 특히 추후에 마약을 사용했을 때 검거는 물론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과 수법도 학습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구술에 의하면 교정시설은 '학교'라는 은어로 지칭된다. 학교라는 말처럼 대마초를 하던 마약 사용자가 필로폰을 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교도소에서 이제 같은 방에 교도소 있는 사람들끼리 마약 주고받고 이런 마약 있다. 저런 마약 있다. 이러면 호기심도 생기고 그런 것도 재밌지 예.” <연구 참여자2>

“그래도 아마 저 있는 방에, 8방에 나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치료 감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하나씩 담아 듣지 저는 이전에 있을 때는 방에서 뭘 얘기하면 너는 어떻게 해서 들어왔나? 어디에서 나서 했나? 어디서 구입할 수 있나? 어떤 방식으로 했나? 그런 연구밖에 안 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야기 하다보면 나중에는 이놈 나가서 다시 재발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안 걸릴까? 그런 걸 연구를 합니다. 사람들은” <연구 참여자5>

(2) 도구적 우정으로 서로 묶임

교정시설 역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공간이다. 특히 마약 사용자들의 경우 다른 수감자들과는 분리되어 수용된다. 이는 차별적 처우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수감자들에게 마약이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같은 방에서 오랫동안 기거할 수밖에 없기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친밀감이 형성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친밀감은 도구적 우정으로 변질된다. 마약을 처음 접하는 사용자들은 마약의 유해성보다는 마약이 주는 쾌락을 더 많이 배우게 되고,

출소 후에도 자연스럽게 연계가 된다. 이런 연계는 마약 재사용으로 이어지는 유희이라고 할 수 있다.

“제가 이때까지 봐왔을 때 제 친구를 봤을 때 친구 00몇 번 살았거든 예. 여기서 만난 사람들하고 관계를 가져가지고 몇 번 계속 들어 오드라고. 뒷이야기 들어보면 대부분이 다 그래요. 교도소에서 유대관계를 쌓아가지고 밖에서 다시 주고받고를 하는 거라고.” <연구 참여자6>

(3) 분리처우에 대한 반발

교정시설에서는 사형을 언도 받은 사람이나 흔히 요시찰로 불리는 개인, 집중적인 감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붉은 명찰을 달아 준다. 마약 사용자는 파란 명찰로 분류된다. 참여자들의 체험에 의하면 파란명찰은 교도소에서도 배제와 불이익의 상징이다. 일반 수감자들에 비해 과도한 제재를 받았다고 구술하였다. 외부로부터 반입되는 물건들을 철저히 조사한다. 특히 마약의 경우 도서는 물론 의류를 통해서 충분히 반입될 수 있다. 교정당국은 이런 점 때문에 마약 사용자들에게 반입되는 물품을 철저히 검사하지만 참여자들은 이를 과도한 제재와 차별대우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마약 사용자들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역이 제한된다. 자유형의 한 유형인 징역(懲役)은 노역을 강제한다. 하지만 현재 교정시설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의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 노역을 함으로써 기술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업 상여금이 지급되어 출소 후에 자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회를 박탈당하였기에 연구 참여자들은 이를 분리와 차별 처우로 의미를 구성하였고 이에 대한 반발이 심하였다.

“일을 해야지 시간도 잘 가고 적지만 돈도 모을 수 있는데 일을 안 시키니까. 마약쟁이들이 사고를 치니까... 그래도 많이 불만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걸 차별이다. 뭐 그런거...” <연구 참여자8>

(4) 낙인의 지속적 강화

마약은 그 자체가 지독한 낙인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범죄자라는

낙인과 함께 마약 사용자라는 이중의 낙인의 구조 속에 위치할 수밖에 없다. 연구 참여자6의 구술에 의하면 교정시설에서 마약 사용자는 살인자보다 더 강한 낙인이 부여되고 본인들 역시 지인들의 면회를 거부하거나 가족들도 마약이 아닌 다른 범죄로 인해 수용되었다고 믿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연구 참여자들에 있어서 교정시설은 이렇듯 이중의 낙인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출소 후에는 마약전과자라는 낙인이 붙을 수밖에 없다. 연구 참여자들이 구속 수감보다는 치료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낙인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저희는 마약사범이기 때문에 파란 명찰이고 그렇데요. 사람들도 꺼려하고 여기 자체도 저희를 많이 생각해주는 부분이 없어요. 출역을 하고 싶어도 출역이 맘대로 되지 않고, 그냥 방에 가둬만 놓는 거죠. 일반수와 다르게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연구 참여자4>

2) 순기능

전술한 「새로운 마약세계 학습」, 「도구적 우정으로 서로 묶임」, 「분리 처우에 대한 반발」, 「낙인의 지속적 강화는 역기능 차원이지만 교정시설은 또한 순기능을 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인위적인 마약 단절의 장」, 「자기 속죄의 기회」, 「사회적 관계기술의 학습」, 「종교와의 조우」, 「자립의지의 지속적 강화」로 주제화할 수 있다.

(1) 인위적 마약 단절의 장

마약의 경우 갈망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 연구 참여자3의 구술에 의하면 마약에 대한 갈망은 부모도 자식도 하느님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것이라고 한다. 마약을 끊고자 해도 신체는 물론 뇌에까지 각인된 마약에 대한 갈망은 쉽사리 없어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를 고질병, 불치병으로 의미를 구성하게 된다.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에 의하면 마약을 끊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몸에 축적된 약기운이 빠져 나가야만 한다. 그런데 교정시설의 경우 비록 인위적인 격리이고 자유를 박탈당한 영어(圍圜)의 몸이지만 자연스럽게 약기운이 빠져나가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연구 참여자6의 구술처럼 목숨을 끊고 싶을 정도로 강렬한 마약 충동이 일어나도 교도소의 높은 담을 넘을 수는 없다. 외부로부터 약물투입이 중단되었기에 연구 참여자들은 멘정신으로 자신과 주변을 볼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 확보되었다고 구술하기도 하였다.

“교도소에서 마약을 하지 않게 되면 처음엔 힘들어도 한 3개월 지나면 거의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3개월 동안은 후유증이 좀 있었고 후유증은 감기 몸살 기운, 열나고 무기력증, 우울증, 조울증 그런거. 그 뒤에는 후유증이 없습니다.” <연구 참여자3>

(2) 자기 속죄의 기회

연구 참여자들은 마약 사용자들의 특성으로 무책임함, 죄의식과 수치심이 없음을 거론하였다(연구 참여자4·5·7). 이러한 것은 마약 사용자들의 본래적 인격이 아니라 마약이 만들어낸 인격이라고 할 수 있다. 참여자들이 마약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갈망의 유희에 빠졌을 때는 자기를 돌아볼 수 없었다. 교정시설은 외부와 격리되었기에 인위적으로 마약을 끊을 수도 있었지만, 또한 자신을 반성하고 미래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장소라 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마약이 자신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었다는 성찰이 있었고 자기 속죄 후 가족과의 정기적 면회를 통해 자신의 무책임함을 반성하기도 하였다. 영화 뱀뱀용(Papillon, 1973)에는 시간의 낭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암시하는 대목이 나온다. 뱀뱀용의 주인공은 판사에게 자신의 죄가 무엇인가를 물었다. 판사의 대답은 시간을 낭비한 죄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시간을 낭비한 것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의 시간을 낭비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마약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사람들의 현재를 보고 자신의 삶을 반성할 수도 있었다.

“어머님은 항상 뭐 부모 자식 간에 말로 표현 못하죠. 저 땀에 속상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연세가 90이 넘으시니까. 어머니는 항상 우시니까. 제가 마음이 아프죠. 나이도 드셨고 그걸 또 이번에 느꼈습니다. 요번 징역에 조금 많이 느꼈습니다. 마약을 왜 했을까? 라는 생각도 하고... 후회가 지금 많이 됩니다.” <연구 참여자3>

(3) 사회적 관계기술의 학습

한국의 교정시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보다 부정적 평가가 우세하다고 보인다. 특히 좁은 수용시설은 늘 문제가 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좁은 주거공간은 인권유린이라는 판단을 했고,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넓히라고 권고하기도 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18:5). 하지만 좁은 공간과 부족한 물자는 갈등과 때로는 폭력의 원인이 되지만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을 성찰한 후에는 학습의 기회가 되었고 절약의 정신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 공동생활은 나눔의 지혜를 배우는 기회였고, 공간의 평화를 위해 험한 말을 절제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말과 예절을 배우는 기회였다. 연구 참여자4의 구술에 의하면 마약 사용자들은 사회의 법과 질서는 물론 정당한 권위와 위계질서도 무시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하였다. 교정시설의 처우에 불만을 가졌을 때는 교도관을 비롯한 교정 당국자들에게 반발하고 저항하였으나 점차 정당한 권위에 복종하는 현상이 발현되기도 했다.

“또 저번에 전 순화가 좀 많이 됐습니다. 다른 데보다는 2급도 달고 1급

도 달고 마약 최초로 1급 모범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도움을 좀 많이 받은 거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양보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마음이 좀 많이 편합니다. 옛날 지냈을 때보다 마음이 많이 편해요.” <연구 참여자3>

(4) 종교와의 조우

교정시설은 때로는 절망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절망과 후회 속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종교에 귀의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이 구성한 종교의 의미는 수치심이 책임감으로 바뀌는 질적 전이의 장이고, 교만을 버리고 도움을 청하는 용기가 생성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절대적 존재인 신에 대한 도움의 요청은 겸손한 마음으로 이어져 전문가의 도움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갖추게 되었다고 분석된다. 연구 참여자 8의 구술에 의하면 마약 사용자들은 단약을 결심한다고 해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 이는 낙인감일 수도 있지만 참여자들은 대부분 이를 교만이라고 의미를 구성하였다. 교만은 마약의 실체를 가린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너무나 쉽게 결정하고 도전하기에 대부분 재발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종교에의 귀의는 철저한 겸손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겸손함은 남에게 도움을 구하는 용기로 변했다고 분석된다.

“천주교 집안이에요. 유아 세례 받고 첫 영성체 받고 견진도 받고 마약을 안 했을 때는 성당을 나가는데 주일마다 어머니 모시고 제가 막내라 어머니 모시고 미사보러 가고 영성체도 모시고...근데 마약을 하면서 성당에 간 적이 없어요. 마약을 하면 종교생활을 못해요. 솔직히 다들 교도 소만 들어오면 교회를 성당을 나가게 되고 나도 성당에 다니면서 신부님 수녀님 자매님들을 만나면서 뉘우치고 있습니다.” <연구 참여자3>
“일단 종교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분이 계시고 가족이랑은 좀 틀린 거죠. 이 안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독교를 믿고 제가 지금 성가대도 하고 있고.” <연구 참여자7>

(5) 자립의지의 지속적 강화

전술한 바와 같이 마약 사용자들은 출역이 제한되어도 직업훈련 서비스는 제공된다. 직업훈련은 마약 사용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의 구술을 종합하면 마약 사용자들은 건전한 직업을 가진 이도 드물다. 기술이 있는 사람들도 드물다. 마약은 시간을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깨닫고 직업기술을 학습할 기회까지 탈취해갔다고 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있어 직업 훈련은 출소 후 자신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직업기술을 배우는 동시에 건전하고 생산적인 직업을 선택하므로 과거의 일탈적이고 퇴폐적인 직업과 단절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분석된다. 특히 직업훈련은 연구 참여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마약 사용자가 아닌 보통 사람으로서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연구 참여자9는 자신의 인생에서 마약을 빼면 제로라고 생각했으나 자동차 정비기술을 배우으로써 자신도 몰랐던 재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직업 훈련은 출소 후 생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아니요. 전에는 제가 이번에 좀 형이 좀 길게 추가를 계속 좀 받아서 형이 좀 길다 보니까, 이런 저한테 직업훈련 받을 기회가 좀 생겼어요. 전에는 이 마약사법들이 형량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직업훈련을 받진 못하고 계속 그냥 방에서만 있다가 그냥 출소하고 계속 그랬거든요.” <연구 참여자7>

3) 결과

위에서 구성한 역기능과 순기능은 상호 독립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라 혼재되어 나타났다. 하지만 참여자들의 구술을 종합해보면 역기능이 먼저 나타나고 순기능이 추후에 나타났다. 결과는 「마약에 대한 인식 오류의 극복」, 「가족으로 귀환하는 화해의 다리 확보」, 「서로가 지지하는 치료공동체」가 순기능의 최종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1) 마약에 대한 인식오류의 극복

교정시설에서는 마약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인지행동치료를 하고 있다. 하지만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교육은 연구 참여자2의 구술처럼 쇠귀에 경 읽기다. 연구 참여자들은 새로운 각오를 다진 후 교육의 효과가 극대화되었다. 연구 참여자5는 스펀지에서 마약이 빠지자 모든 것을 썩썩 받아들였다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변화가 있기 전 대부분 마약은 피해자 없는 범죄라는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다시 말해 마약 사용의 피해는 자신들에게만 일어나고 남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 후 마약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가족과 더 나아가 사회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고, 특히 자신의 영혼까지 좀먹는 범죄이자 질환임을 깨닫게 되었다. 마약의 최종적 피해자가 자신이라는 인식은 자기사랑의 필요성으로 발전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경험을 통해서 마약 사용의 종말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를 애써 외면했고 순간의 쾌락에만 집중했다. 마약에 대한 정당한 인식은 마약 사용자의 종말이 파멸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했고 순간의 쾌락 역시 영원한 고통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마약의 끝은 죽음이나 자살이라는 것을 막연하게 인식했고 자기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치부했지만 이

를 자신의 문제로 보는 긍정적 자기화 경험이 일어났다.

“마약에 대해서 이제 어떤 자선에 피해가 온다는 걸 다시 실제 사람들이 이 마약하면 정신적으로 지금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몸의 피로나 기억력이나 이제 다 분노 일어나는 게 마약을 보면 많이 그렇습니다.” <연구 참여자5>

(2) 가족으로 귀환하는 화해의 다리 확보

연구 참여자들에게 가족은 영원한 죄책감이자 동시에 그리움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마약은 가족들마저 지치게 하고 멀어지게 만든다. 연구 참여자4의 경우 길거리에서 친누나를 만났으나 누나는 알은 척하지 말고 가던 길을 가라고 했다.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이 이와 유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변화는 가족의 변화로 이어졌다. 마약을 끊겠다는 의지를 굳건히 했을 뿐만 아니라 교도소에서 삶의 방식을 바꾸자 외면했던 가족들이 희망을 갖고 찾아오기 시작하였다. 배우자가 있는 연구 참여자들은 부인과 출소 후 생활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천 번도 넘게 말했으나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 적은 없다고 했다. 진정한 용서는 화해라는 선물이 되어 다시 돌아온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교정시설은 가족과는 격리된 곳이지만 이러한 변화가 있자 가족으로 되돌아가는 화해의 다리를 만드는 곳으로 의미가 재구성되기도 하였다.

“니 곁에 있어 만지고 싶어도 만질 수가 없는 그런 비참함 모르실 거예요. 그게 참 비참해요. 그게 이 안에 들어와서 그런 걸 겪고 있다는 게 그리고 전체적인 치료나 뭐 이렇게 받아봤다면 어떻게 대처를 할 방법이 없는데... 가족과 같이하지 못하고 있어 고통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단약을 해야 되겠구나.” <연구 참여자4>

(3) 서로가 지지하는 비공식적 치료 공동체

연구 참여자들이 교정시설을 수감의 장소로 생각했을 때는 동료들과의 관계는 계산적이었고 때로는 마약과의 연결고리가 되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긍정적 경험을 한 후에는 서로가 단약의 중요성을 깨닫고 지지하는 단약 공동체로 바뀌었고 특히 모두가 상처 입은 사람들이기에 동변상련의 정서가 강하게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이 생활하는 마약방은 한편으로는 단약학습의 장이었다. 잡담과 과거의 일탈적 행동에 대한 이야기들이 줄어들고 단약의 방법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단약 계획을 세우는 자기학습의 장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동료 수감자들의 단약 실패 경험은 반면교사(反面教師) 차원에서 학습되었고 성공의 필요성으로 각인되기도 했다. 주된 변화는 마약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대화는 줄어들고, 부정적 대화의 양이 늘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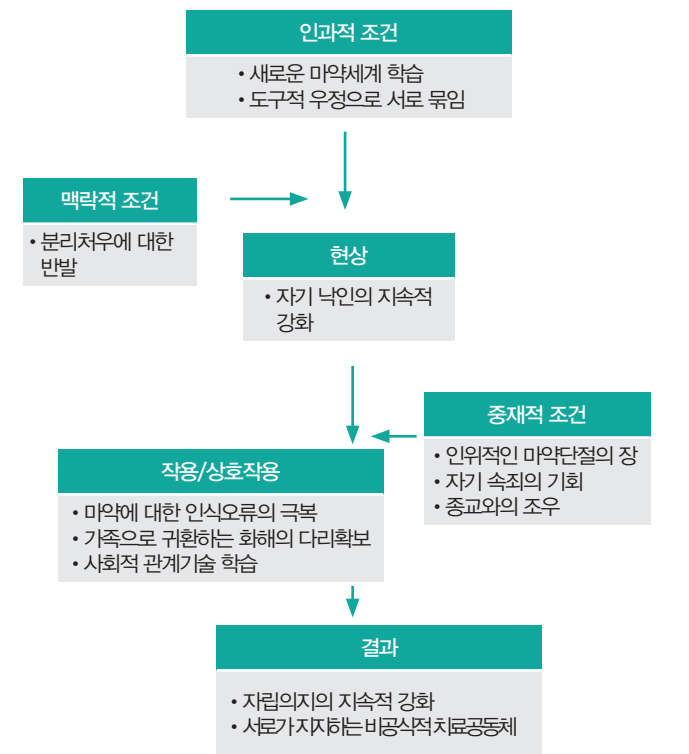
서 쌓인 상호지지와 신뢰는 가족과 사회에 대한 신뢰로 발전했다고 할 수 있다.

“전에는 마약 얘기만 하고 참 말하기도 그렇지만 부끄러운 이야기들도 많이 했죠. 여자, 술, 노름, 마약 등 그러다가 이제는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 것인가? 다시 갈망을 오면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것 마약을 하고 싶은 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이야기해요. 약을 어떻게 끊을 것인가도 이야기해요.” <연구 참여자3>

2. 교정시설 체험의 구조와 본질

현상학적 연구자들은 인간이 직면하고 경험한 현상은 매우 복잡하고 엉켜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저에는 공통적인 구조가 있다고 믿고 있다. 많은 현상학적 연구에서 구조는 주제에 대한 정의와 주제들의 연결을 의미한다(Giorgi, 2009: 105). 현상학적 연구에서는 그 구조를 나타내기 위하여 주제들 간 관계를 그림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해 기술하는 경우가 많다(Van Manen, 2014: 32).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에서 도출한 53개의 주제를 결집한 12개의 주제결집을 중심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체험에 구조를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과학에서는 구조를 드러나게 한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는데 이중 Corbin 과 Strauss(2014)가 제시한 패러다임 모델은 인과적 조건에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그림 1> 연구 참여자들의 교정시설 생활체험의 구조



에 순차적 과정과 함께 여기에 영향을 주는 맥락적 조건과 중재적 조건 등을 제시하여 현상에 대하여 총체적인 구조와 그 관계들의 연결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Corbin과 Strauss(2014)가 제시한 패러다임 모델에 근거하여 <그림 1>과 같이 제시한다.

(지면 관계상 일부 중략)

이처럼 마약 사용자들은 교정시설의 분리처우에 대한 반발이 부정적 낙인을 강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이란 작용/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하며, 맥락적 조건보다는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조건들이다(Corbin & Strauss, 2014: 64). 연구 참여자들에게 교정시설은 자기낙인의 장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약과 단절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마약을 사용했지만 아무도 구속수감을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구속수감 자체는 마약에서 자유로운 시간을 갖게 하는 인위적인 마약 단절의 장이 되었다. 또한 마약과 단절된 후 비로소 속죄의 기회를 가졌다. 이러한 속죄는 종교적 경험으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중재적 조건들은 연구 참여자들의 긍정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작용/상호작용(action/interaction)은 연구 참여자들이 자기낙인의 지속적 강화라는 현상을 다루고 조절하는 행동전략이나 정서, 마음가짐, 미래의 계획들을 의미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기낙인 강화라는 지속적 경험을 했지만 마약에 대한 인식오류를 극복할 수 있었다. 마약 사용자는 피해자 없는 범죄라는 인식의 오류를 성찰을 통해 극복하였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부활시키고 가족과의 관계를 모색하는 의지가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화해의 다리를 확보하였고 이는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초기에는 도구적 우정으로 서로가 묶여 있었지만 작용/상호작용을 수행하게 긍정적 결과로 나아갔다.

(지면 관계상 일부 중략)

V. 결론

본 연구는 남성 마약 사용자들이 교정시설 생활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로서 현재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9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Colaizzi가 제시한 현상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53개의 주제가 분리되었고 공통성 차원에서 12개 주제를 결합하였다. 12개 주제가 압축적으로 시사한 결론은 교정시설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지만 마약 사용자들은 성찰을 통해 자립의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했으며 사회적 정체성을 재구성하여 교정시설을 치료공동체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연구자들은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를 개진하고 이에 근거한 교정 차원에서의 마약 사용자 회복을 지지하기 위한 실천 방향과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의 자기낙인에 대한 논의이다. 낙인은 사회적 낙인과 자기낙인(Self-stigma)으로 구분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사회적 낙인은 제도적 보호, 인식과 개선된 문화의 발달 등으로 인해 약해질 수 있다(Richter et al, 2019: 124-126). 또한 낙인은 직접적인 폭력보다는 대부분 개인에 대한 평가, 시선 등과 관계되어 있기에 사회적 기회의 박탈이나 배제 등도 일어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적인 위해(危害)를 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자기낙인은 개인들이 사회적 낙인을 내면화하여 자기의 존재양식으로 삼고 자기를 스스로 평가절하하는 것이다(LeBel, 2008: 147; Moore et al., 2016: 203). 낙인이론가에 의하면 사회적 낙인보다는 자기낙인이 더 많은 부정적 결과를 양산한다(Phillips, 2016: 16-21).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 마약 사용자라는 것과 교정시설에 수감되었다는 두 개의 낙인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교정시설에서는 이러한 낙인을 스스로 벗고자 하는 노력 없이 지속적으로 강화시켰다. 이러한 자기낙인의 강화는 부정적 집단정체성이라고 판단된다. 자기낙인은 낙인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자신들의 정체성을 재구성하여 벗어날 수 있다(Avery, 2019: 161).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 낙인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은 던졌지만 스스로 집단정체성을 재구성하지는 못하였다. 마약 사용자들은 마약 중독자나 범죄자가 아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자기회복력을 발휘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복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집단정체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초기에 정체성구성에 실패하였다. 이러한 정체성 구성의 실패 원인은 분리처우에 대한 반발이나 동료들 간 지속적인 마약 대화가 원인이 된 호기심의 증폭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낙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교정시설에서는 마약 사용자를 대상으로 긍정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행복증진 프로그램과 내면아이 프로그램 등이 시행되고 있다(김연실 외 2017: 11).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효과성은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되었지만 마약 사용자들의 정체성을 재구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교정시설에서는 일반 수용자들의 마약 사용 유혹을 근절하고자 분리수용을 하고 있고 많은 경우 출역을 제한하고 있다(조병인, 2004: 49-53). 교정정책 차원에서는 타당한 면이 있어 보인다. 마약 사용자들이 재활도 중요하지만 일반 수감자들의 보호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 수감자를 보호하고 마약 사용자들의 재활을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마약 사용자들과 일반 수감자를 분리하여 마약 사용자들의 전용공간을 마련하고 그들의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 교육과 노동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교정시설 수감자들에게 노동은 징벌이지만 동시에 직업기술훈련과 사회재적응의 기회가 될 수 있다(조요운, 2012: 197). 방어적 차원에서 벗어나 좀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차원에서 마약 사용자들의 교정시설 내 노동지원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마약 사용자들의 가족화해와 가족관계 재구성에 대한 논의이다. 연구 결과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많은 마약 사용자들은 가족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 마약 사용자들은 물론이고, 문제 또는 취약성을 지닌 개인의 회복에 있어서는 사회적 지지와 함께 가족의 지지가 가장 중요한 재활자원으로 보고되고 있다(장진경, 2003: 61-62; 강은영, 2006: 40; 유상희, 2019: 109). 개인의 회복력(resilience)은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데 가장 강력한 것이 가족의 지지이기도 하다. 가족의 지지와 가족관계를 회복한 사람들은 재활의지가 강화되었고 특히 단약효능감이 높아졌다. 가족이 있기에 참여자들은 마약을 끊어야만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었고 구체적 전략까지 시도할 수 있었다. 이처럼 가족관계 회복이 재활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시간을 가족 재구성의 시간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정당국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가족들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현재 교정시설에서는 마약 사용자들의 교정과 회복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지만 가족은 배제되어 있다(유상희, 2019: 109). 배제의 원인은 가족들의 참여는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데 금지물품의 반입과 때로는 가족 간의 폭력 등 위험도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사전 예방과 대비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교정시설 내 공간 등을 활용한 가족 참여 프로그램 구성을 제안한다. 또한 마약 사용자들의 경우 출소계획을 수립하고 그 과정을 가족과 함께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출소는 양가적이다. 자유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세상에 다시 던

져진다는 불안감도 지니고 있다. 이들에 대한 개별 출소 계획을 수립하고 가족과의 연계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교정시설을 치료공동체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이다.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점은 교정시설이 치료공동체로 재탄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외국에서는 교정시설을 단순한 징벌과 수감이 아닌 치료공동체로 바꿀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Dekkers et al., 2020: 94). 교정시설은 사회 재적응에 긍정적인 면도 있다. 그 곳은 마약의 유혹에서 자유로운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마약과 단절되자 자기의 삶을 직면했고 성찰과 속죄의 변화가 일어났다. 치료공동체는 같은 문제를 지닌 개인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지지하며, 회복을 추구하는 변화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차진경, 2013: 19-57). 마약 사용자들은 교정시설에서 마약에 대한 새로운 정보인 판매와 공급루트를 확보하는 부정적인 현상도 일어났지만, 사회적 관계 기술을 학습하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부활하자 서로가 단약을 지지하고 위로하는 공동체로 바뀌었다. 하지만 교정시설이 일시에 치료공동체로 발전할 수 없다. 치료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마약 사용자들이 마약에 대해 지녔던 왜곡된 인식에서 탈피하고 강렬한 재활의지가 발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정시설이 치료공동체로 가는 길목에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교정시설에서는 마약 사용자들에 대한 교육과 상담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부분 교정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가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다.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당사자들로부터는 주입식 교육이라는 반발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반발을 해소하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조모임(narcotic anonymous)이 필요하다. 현재 구미 각국에서는 A·A모형을 응용한 N·A모임이 마약 사용자들의 회복에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그 효과도 검증되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수감자를 대상으로 한 N·A모임은 공주치료감호소 이외에는 찾아볼 수 없다. 교정시설에서도 N·A모임을 활성화시켜 마약 사용자 스스로가 마약의 문제를 인식하고 재활의 의지를 복돋울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교정시설에서의 N·A모임은 오히려 수월하게 구성될 수 있다.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같은 방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N·A모임이 될 수 있다. N·A모임 초기에는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하지만 외부전문가들과 모임을 정기적으로 할 수 없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교정공무원들을 교육시켜 그들을 N·A모임의 코디네이터로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법무부는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인권 보호와 교정 행정 혁신을 위한 '제1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 교정본부의 새로운 꿈

“변화를 향한 믿음, 함께 만들어가는 국민안전”

기본계획에 따라 '변화를 향한 믿음, 함께 만들어가는 국민안전'을 비전으로 인권중심, 다양성 존중, 국민신뢰, 조직혁신, 스마트 교정 등 5가지 추진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럼 하나씩 알아볼까요?

첫째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인권중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적극적 인권중심 정책실현으로 수용자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수용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1 과밀수용 해소 및 시설 현대화
- 2 의료처우 증진
- 3 보호장비 사용 및 출정업무 개선
- 4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방안 마련
- 5 교정공무원 인권감수성 제고

둘째 틀린 게 아닌 다른 '다양성 존중'

수용자의 개별적 특성을 존중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추진으로 실질적 사회복귀가 가능한 교정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1 과학적 분류처우 및 개별처우 강화
- 2 교육교화 프로그램 내실화
- 3 직업훈련 및 교도작업 활성화
- 4 심리치료 프로그램 강화
- 5 다양한 문화콘텐츠 제공

셋째 개방적이고 투명한 '국민신뢰'

외부 모니터링 확대 등 교정정책에 대한 개방과 투명성 확보를 통해 예측 가능한 교정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 1 교정행정 투명성 확보
- 2 지역사회 자원활용 및 홍보 강화
- 3 교정업무 민간참여 활성화
- 4 회복적 사법 실현

넷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직혁신'

교정행정의 목표 달성에 적합한 조직체계를 재정립하고, 기능과 역할에 따른 인력배치 등 능동적인 조직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 1 조직운영 효율성 증대
- 2 교정공무원 역량 강화
- 3 수요자 중심의 교정시설 건축
- 4 교정공무원 복지 개선

다섯째 미래지향적인 '스마트 교정'

기술융합 등 4차 산업혁명 변혁의 시대에 교정행정력을 강화하고,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적극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1 기술융합을 통한 첨단 교정행정 구현
- 2 차세대 교정정보시스템 구축
- 3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실효성 확보
- 4 비대면 교정서비스 제공

새롭게 도약합니다

다섯 가지 추진목표에 따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정행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새롭게 도약하는 교정본부를 기대해 주세요!

제1회 교정보부장·현장직원 릴레이 소통 간담회 개최



교정보부는 지난 11월 13일 교정보부 회의실에서 제1회 교정보부장·교정직원 릴레이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영희 본부장이 주재한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지방교정청 정성천 교위 등 15개 기관 15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일선기관 직원들이 고충사항을 자유롭게 토로하고 주요 정책에 대해 개선사항을 건의하는 등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간담회를 마친 후에는 본부장이 주재하는 격려 오찬이 이어졌다.

주한 미국대사관 총영사 접견



지난 11월 25일 주한 미국대사관 총영사 린다 데트와일러 등 4명이 교정보부를 방문했다. 교정보부장 집무실에서 이루어진 이날 접견에는 보안정책단장, 보안과장, 심리치료과장 등이 배석했다. 미국 국적 수용자의 이송, 출소 시 주한 미국대사관 통보 협조 등을 안건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밝은 분위기에서 대한민국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와 상호 업무교류를 증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교정보부 업무현황 설명회 개최



교정본부 업무현황 설명회 개최

교정보부는 지난 11월 4일 교정보부 심리치료과를 시작으로 11일 사회복귀과, 18일 분류심사과, 25일 직업훈련과 등 교정보부 각 과의 업무현황 설명회를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개최했다. 언론사의 법조출입 기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교정보부 각 과의 업무 및 추진정책 등에 대한 언론의 이해도를 제고하여 왜곡·부정 보도를 방지하고 긍정 보도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도 제8회 전국 교도관 응급처치 경연대회 개최



2020년도 제8회 전국 교도관 응급처치 경연대회 개최

교정보부는 지난 11월 13일 법무연수원 대강당에서 전국 10개 교정기관 직원 30명이 출전한 가운데 '2020년도 제8회 전국 교도관 응급처치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교정현장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수용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교정공무원의 응급처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황별 시나리오에 따른 심폐소생술 시행 및 자동심장충격기 작동 등 응급상황 대응능력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최우수상은 청주여자교도소에 돌아갔다. 이날 수상팀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수여됐다.

제1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 시달

제1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 시달

교화방송 라디오 '12시의 면회' 시즌2 제작

교화방송 라디오 '12시의 면회' 시즌2 제작



서울지방교정청

서울지방교정청 / 교위 노웅비

안전 반출 및 파기훈련 실시

서울지방교정청은 11월 3일 '안전 반출 및 파기 훈련'을 실시했다. 이는 전사사변 등 비상사태 발생 시 비밀 관리에 대한 개인별 임무 상태를 숙지하고, 반출 장소 및 파기 준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훈련은 상황 발령 후 각 부서 훈련 참여자들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파기 조는 장비를 이용해 파기 실시, 지출조는 사전에 지정한 장소로 해당 자료를 옮기는 순서로 진행됐다. 청은 추후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으로 비밀 관리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서울구치소 / 교도 김상혁

감사나눔 미디어그룹 업무협약 체결



서울구치소는 11월 4일 청사 2층 회의실에서 감사나눔 미디어그룹(대표 김용환)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수용자에게 인성교육 교재와 감사나눔신문을 제공하고 인성교육 강의를 통한 재능기부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안양교도소 / 교위 박준석

청렴 실천 및 갑질 예방 간담회 개최

안양교도소는 11월 10일 청사 2층에서 총무과장 등 직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실천 및 갑질 예방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청탁 금지법 개정 사항에 대한 주요 내용 교육, 갑질 예방 영상 시청, 청렴 실천 및 갑질 예방 결의대회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를 계기로 안양교도소 직원은 청렴을 생활화하고 갑질문화를 근절하기로 다짐했다.

수원구치소 / 교사 홍진석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시

수원구치소는 11월 16일 한국인성인재교육개발원 박수연 강사를 초빙하여 소속 직원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강의는 4대 폭력의 이해와 발생원인, 피해 예방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은 마스크 착용 및 체온 체크, 손 소독, 개인 간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실시됐다.

서울동부구치소 / 교위 최재화

신규 직원 임용식 개최

서울동부구치소는 11월 16일 새로운 식구로 맞이한 공업서기보의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날 임용식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여 임명장을 수여하고 꽃다발을 전달했다. 신규 직원이 업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소속 부서원뿐만 아니라 직원 모두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인천구치소 / 교도 이남웅

2020년 정부정책 소통과정 교육 실시



인천구치소는 11월 10일 대회의실에서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정부정책 소통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사전에 방역을 실시하고, 교육 참석자의 발열체크 등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하에 정부혁신, 적극행정 등 주요 정책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 참석한 직원은 "적극행정의 중요성, 갑질 행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라고 밝혔다.

서울남부구치소 / 교위 김광찬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 기증

서울남부구치소 11월 10일 (사)한국청소년폭력방지협회로부터 10월에 이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 3000장을 기증받았다. 김정선 소장은 "재차 도움을 주신 한국청소년폭력방지협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코로나19로부터 수용자의 건강을 지키고 수용자 교정교화와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교위 이재희

사랑나눔행사 실시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11월 12일과 18일 이틀간 돌다섯해누리 등 사회복지시설 4곳을 방문하여 쿠키 100상자와 빵 120상자를 전달하는 사랑나

눔행사를 가졌다. 소는 매월 두 차례씩 직업훈련교사의 지도를 받은 수용자들이 만든 쿠키와 빵을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에 전달,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의정부교도소 / 교사 최재성

코로나19 극복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동참

의정부교도소는 11월 9일 코로나19 극복과 조기 종식을 기원하는 '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 캠페인'에 동참, '코로나19 극복, 의정부교도소가 함께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의정부교도소의 의지를 다졌다. 하영훈 소장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개인위생,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여주교도소 / 교사 하승환

여주시장 방문, 업무 협의

11월 11일 이항진 여주시장이 여주교도소 원에 작업장과 장애인 교육실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이항진 여주시장은 국화 재배 등 여주교도소와 관련한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해 여주교도소의 업무협조를 구했으며 이에 남준락 소장은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사회와 공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서울남부교도소 / 교사 명수환

안전 반출 및 파기훈련 실시



서울남부교도소는 11월 17일 '안전반출 및 파기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적의 침투,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주요문서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반출, 파기할 수 있는 긴급상황 대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실시됐다. 훈련에 참여한 직원들은 반출 책임관의 지휘를 받아 신속하고 적극적인 임무 수행 모습을 보였으며, 모의훈련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 등은 향후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훈련의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춘천교도소 / 교사 양진호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 감사패 전수

춘천교도소는 11월 11일 청사에서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간의

생명보호를 위한 헌혈 행사를 수회 실시한 공로를 인정받은 장종선 소장은 "앞으로도 생명을 나누는 헌혈을 비롯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원주교도소 / 교사 천병훈

화재발생 및 도주상황 대비 훈련 실시

원주교도소는 11월 20일 개방지역 작업장 일대에서 화재발생 및 도주상황 대비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을 통해 화재발생 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점검하고 수용자 도주 상황에 대한 조치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복합상황 발생 시 대응 능력을 향상시켰다.

강릉교도소 / 교위 이태원

코로나19 극복 사랑의 헌혈운동 동참

강릉교도소는 11월 5일 강릉교도소 체육관에서 대한적십자사 강릉혈액원과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헌혈운동에 동참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단체 헌혈을 통해 도움을 주고자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 직접 헌혈에 참여한 김일환 소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영월교도소 / 교도 정옥수

코로나19 극복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동참

영월교도소는 11월 25일 코로나19 극복을 기원하며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승철 소장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코로나19가 빠르게 종식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전 직원은 거리두기를 철저히 하고 개인위생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강원북부교도소 / 교위 양인호

순수 안화경비시설 강원북부교도소 개청



강원북부교도소는 11월 20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김성호 강원도행정부지사, 김철수 속초시장, 이영희 교정본부장을 비롯한 유관 기관장과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 기념행사'를 개최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우리 소가 성공적으로 신축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받아준 속초 시민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를 위해 교정현장에서 '따뜻한 교정, 인권 중심의 교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 교위 윤우리

수용자 취사장 환경개선

수원구치소 평택지소는 11월 30일 수용자 취사장 바닥 환경개선 공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환경개선으로 수용자 취사장 바닥에 노후화되어 생긴 녹 등을 제거하여 깔끔한 환경을 조성하고, 배수로 정비로 물 빠짐을 좋게 하여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미끄러움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소망교도소 / 양재영

출소자 폐기 희망 도서 기증

소망교도소는 11월 12일 수용자가 출소하면서 폐기를 희망한 도서 중 상태가 양호한 도서 70여 권을 경기도 여주에서 운영하는 '책 나무터'에 기증했다. 소는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총 560권의 도서를 기증했다. 책 나무터는 여주시와 비영리단체 '여주시사람들'이 운영하는 이동식 도서관으로서 현재 15개 버스정류장에 설치되어 있다.

대구지방교정청

대구지방교정청 / 교위 정청열

찾아가는 정책소통 간담회 개최



대구지방교정청은 11월 4일 교정본부 교정혁신추진단에서 주관하는 '찾아가는 정책소통 간담회' 대구지방교정청 대구·경북권 간담회를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구교도소 등 12개 기관이 참석해 교정혁신추진단에서 준비한 자료를 시청한 후 근무제체 개편, 보호장비 사용 개선 등 교정행정 주요 현안을 격의 없이 논의했다.

대구교도소 / 교위 김재현

찾아가는 정부정책 소통 간담회 실시

대구교도소는 11월 12일 추진 중인 교정정책에 대해 소통하고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찾아가는 정부정책 소통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덜림과 성장' 박지현 대표의 강의로 진행됐으며, 정부혁신, 적극행정 및 갑질 예방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직원들의 불편불만 사항을 수렴함으로써 진정한 소통의 시간이 되었다.

부산구치소 / 교사 최병철

보안야근 근무자 격려 행사 실시

부산구치소는 11월 13일 '밤낮 없는 현장근무 보안야근 근무자 격려 행사'를 가졌다. 우희경 소장은 이날 수용동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보안야근 당직팀 근무자 총 208명에게 KF94 방역 마스크 25장씩을 격려 물품으로 지급했다. 우희경 소장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경각심을 놓치지 말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 교도 진용혁

해동청 제막식 행사 실시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11월 12일 경북북부교정기관 교정마을 입구의 해동청 제막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해동청 동상을 비상대기숙소 입구에 설치하여 교정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북부제1교도소와 경북직업훈련교도소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동청 동상을 제막한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김성기 전문경력관이 표창장을 받았다.

창원교도소 / 교도 한기상

지역학교 '직업인과의 만남' 강연 참석



창원교도소는 11월 13일 경상남도 의령군 소재 지정중학교에서 운영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 '직업인과의 만남' 행사에 참석했다. 학생들은 교도관에 대해 궁금한 점 등을 질문하며 진로 탐색 시간을 가졌다. 강연자로 참석한 이동기 교사는 "이번 만남이 학생들의 진로 결정에 자그마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강연 소감을 전했다.

부산교도소 / 교위 박종철

제31회 (사)아시아교정포럼 추계공동학술대회 개최



부산교도소는 11월 20일 청사 직원교육실에서 '회복적 사범의 교정현장에서의 구현, 그 효과성과 미래'라는 주제로 제31회 (사)아시아교정포럼 추계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회복적 교도소 프로그램 적용 사례'를 발표한 김명식 소장은 "우리가 단 한 사람의 수형자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결국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것을 알기 때문"이라며 회복적 사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포항교도소 / 교도 김병수

풋살장 및 족구장 개장식 개최

포항교도소는 11월 9일 풋살장 및 족구장 완공 개장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개장 기념 테이프 커팅식에 이어 조성공사 경과보고, 소장 축하 및 시축, 다과회 순으로 진행됐다. 김태수 소장은 "새롭게 개장하게 된 풋살장 및 족구장을 통해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하고, 직원 간 교류를 증진하여 상호 소통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자"라고 당부했다.

진주교도소 / 교위 정주영

직업인 초청 특강 참석

진주교도소는 11월 6일 경상대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직업인 초청 특강에 참석하여 교정공무원에 대해 소개했다. 이날 특강에는 전경배 교위가 강사로 나서 교정행정을 홍보하고, 교정공무원의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등 학생들에게 열강을 펼쳤다.

대구구치소 / 교도 김경민

비공무원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대구구치소는 11월 16일 직원식당에서 비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차단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직원식당에서 소규모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젠더 폭력의 문제인식, 성폭력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 성폭력 예방 대책 등에 대한 시청각 교육으로 이루어졌다.

경북직업훈련교도소 / 교도 이정호

합동 소방훈련 실시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11월 20일 가족 만남의 집에서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화재 발생의 실제 상황을 가상하여 자위소방대의 신속한 대처능력을 점검하고 합동소방훈련을 통해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류동수 소장은 "전 직원이 화재 발생 매뉴얼을 숙지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안동교도소 / 교사 김길수

경찰대학교 학생 교정시설 참관

안동교도소는 11월 13일 경찰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참관을 실시했다. 이날 참관하러 온 학생 15명은 수용자들이 생활하는 수용동 등을 보며 교정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금용명 소장은 "일반인에게 지속적으로 교정시설을 공개하여 교정에 대한 선입견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북북부제2교도소 / 교사 심상현

1사촌 결연마을 사과 수확 돕기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10월 29일 청송군 진보면 세장리를 찾아 결연마을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사과 수확기를 맞아 사과 따기와 선별작업으로 진행됐다. 활동에 참여한 직원들은 "고령화가 심한 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협력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천소년교도소 / 교위 조덕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김천소년교도소는 11월 12일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차재성 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김천소년교도소 직원들이 성인지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북북부제3교도소 / 교도 이영진

직원 격려행사 실시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11월 18일 교정시설 내 코로나19의 확산 및 예방에 힘쓰고 있는 직원을 격려하기 위하여 점심 메뉴를 회덮밥으로 지급하는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점심식사를 마친 직원들은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한다. 더욱 힘을 내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울산구치소 / 교사 황정목

보안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 개최



울산구치소는 11월 12일부터 매주 한 차례씩 4회에 걸쳐 보안과 각 팀 근무자를 대상으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기간 코로나19 관련 업무로 피로감이 누적된 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경청하여 적극행정 실현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경주교도소 / 교위 조경동

2020년 하반기 합동방호 진단 실시

경주교도소는 11월 13일 제50사단(작전장교 안형대 대위 등 2명), 경북지방경찰청(경장 강동수 등 2명) 주관하에 '2020년 하반기 합동방호 진단'을 실시하여 교정시설이 국가중요시설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진단을 받았다.

통영구치소 / 교위 박원주

대체복무제 정책설명 교육 실시

통영구치소는 11월 2일 직원교육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체복무제 정책설명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담당 박재우 교위가 내부강사로 참여해 지난 10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대체복무제의 추진경과, 복무분야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이번 교육은 대체복무제 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정책 소통의 장이 되었다.

밀양구치소 / 교사 최상훈

교정행정발전 유공자 표창 수여

밀양구치소는 11월 3일 소장실에서 제75주년 '교정의 날'을 기념하여 교정행정발전(의료처우

분야)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유공자는 수용자 구강 건강관리에 힘쓴 미르치과 치위생사 이수진·손유진 씨와 수용자 방사선 진단에 도움을 준 윤병원 방사선사 정삼문 씨, 수용자 외부의료시설 진료에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한 소내 원무과 박정은 씨 등 4명이다.

상주교도소 / 교위 이상빈

2020년 법무부 지식행정 우수기관 선정

상주교도소는 11월 17일 '2020년 법무부 지식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소는 교정행정 실무자로서 직접 작성한 각종 문서, 인권 및 예산 등 다양한 인용 자료를 등록해 법무지식 활성화에 기여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식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게 됐다.

대전지방교정청

대전지방교정청 / 교위 최재혁

소속기관 정책현장 방문



김천수 대전지방교정청장은 11월 4일과 11일 각각 공주교도소 및 충주구치소 정책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서 김천수 청장은 수용동 등 구내를 직접 순시하며 기관 운영 실태 및 교정행정 주요 추진상황을 점검했으며 수용관리 및 코로나19 유입 방지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대전교도소 / 교감 송재상

분리수거 우수거실 및 작업장 제도 운영

대전교도소는 11월 1일부터 '쓰레기 분리수거 우수거실 및 작업장 제도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수용동 및 작업장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지급하고 분리배출 교육을 실시하여 수용생활 중 분리수거를 습관화할 수 있도록 했다. 소는 앞으로도 철저한 쓰레기 분리배출을 통해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자원운용

에 앞장설 계획이다.

청주교도소 / 교사 이승기

2020년 나눔국민대상 수상

청주교도소 복지와 공업서기보 김명식이 11월 5일 '2020년 나눔국민대상' 인적나눔 부문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년간 넓은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해온 김명식 공업서기보는 "공직자로서 당연히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자 했을 뿐인데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이웃사랑 나눔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겸손한 소감을 전했다.

청주여자교도소 / 교사 김은정

교도관 응급처치 경연대회 최우수상 수상

청주여자교도소는 11월 13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개최한 제8회 전국 교도관 응급처치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날 대회는 심정지 등 응급상황을 가정해 응급처치 과정을 시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청주여자교도소 출전팀은 짜임새 있는 상황극과 정확한 응급처치 시연으로 예선을 통해 선발된 전국 10개 기관 중 가장 우수한 능력을 가진 팀으로 선정됐다.

공주교도소 / 교위 이희명

소란·난동 진압훈련 실시



공주교도소는 11월 13일 수용자 소란·난동 대비 진압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지휘체계의 문제점 등을 점검하는 한편 직원들의 현장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가졌다. 소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실전 대비 능력을 점검하고 현장대처 매뉴얼을 정립할 계획이다.

천안교도소 / 교도 전인호

2020년 정부정책 소통과정 교육 실시

천안교도소는 11월 12일 정부정책 소통과정 외부강사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정부혁신, 적극행정, 갑질예방 등 주요 정부정책

을 주제로 한 교육으로 일선 공무원들의 정부정책 성과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됐다. 또한 이번 교육은 인문학 소통 및 체험을 통해 구성원 간 친교의 시간을 공유함으로써 조직문화 개선과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천안개방교도소 / 교위 정민호

천안시 중앙도서관 업무협약 체결



천안개방교도소는 11월 6일 수용자 독서 분위기 조성을 통한 심리적 안정과 교양 습득, 교육·교화 프로그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천안시 중앙도서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수용자가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심성을 순화함으로써 재범 방지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성교도소 / 교도 조경환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시

홍성교도소는 11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재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직원들은 "사례 교육을 통해 예방법과 대처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충주구치소 / 교위 류종근

정부정책 소통과정 직장교육 실시

충주구치소는 11월 19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0년 정부정책 소통과정' 교육을 실시하고 정부혁신·적극행정·갑질예방 등 주요 정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교육을 통해 직원들은 정부정책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 및 활성화 등 성과창출을 체감함으로써 정부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전교도소 노산지소 / 교도 손준성

직원 승진 신고식 개최

대전교도소 노산지소는 11월 27일 직원 승진 신고식을 개최했다. 직원들의 열렬한 박수와

축하를 받으며 승진 신고를 마친 박주하 교사는 “앞으로는 공직자로서 더 막중한 책임감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근무에 임하겠다. 논산지소에 꼭 필요한 직원이 되겠다”라고 다짐했다.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 교도 김승인
외부강사 초청 청렴교육 실시

홍성교도소 서산지소는 11월 1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부정청탁의 유형 및 대응방안에 대한 사례 중심의 강의를 통해 직원들은 부정청탁의 개념 등을 정확히 숙지할 수 있었다.

광주지방교정청

광주지방교정청 / 교위 윤정구

광주교도소 코로나19 대응 관련 현장방문 실시

광주지방교정청은 11월 10일 광주교도소 코로나19 대응체계 점검을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유승만 청장은 확진자 발생 경위 및 상황과 조치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광주교도소 전 직원이 합심하여 감염병 확산방지에 노력하고, 어려움을 잘 극복하기를 바란다”라며 교정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광주교도소 / 교도 심우민

청사 조경목 정비작업 실시

광주교도소는 11월 20일부터 3일간 청사 주변에 방치되어 있던 조경목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무성하게 자란 덩굴과 잡목들을 정리함으로써 청사 주변이 한결 더 정갈한 모습으로 탈바꿈하였다. 작업에 참여한 직원은 “조경목을 정리하고 나니 앞으로 출근길이 기대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전주교도소 / 교위 박승훈

정부정책 소통과정 사례 교육 실시



전주교도소는 11월 5일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부 혁신, 적극행정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사례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을 통해 정부의 적극행정 및 정부정책 혁신 실천 방안을 이해하고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바람직한 자세와 마음가짐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순천교도소 / 교위 김기표

수목 식재작업 실시

순천교도소는 11월 23일 보안청사 중앙화단 조성, 대운동장 및 여사 운동장 수목 식재작업을 완료했다. 보안청사 앞 중앙화단에 홍가시나무 1그루, 대운동장 등에 만나무 등 9그루를 식재했다. 박병일 소장은 “수목 식재로 쾌적한 수용환경을 조성하여 수용자의 심적 안정, 교정사고 예방에 기여하길 바란다. 수목이 자라 운동 중인 수용자들의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목포교도소 / 교사 곽현국

제기 대체복무요원 배치



목포교도소는 11월 13일 대전 임시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마친 제기 대체복무요원 54명을 인솔했다. 소로 배치된 대체복무요원들은 35개월간 합숙을 통하여 급식, 물품 및 시설관리 등 대체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정봉수 소장은 제기 대체복무요원들에게 긍지를 가지고 대체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엄정한 복무관리로 대체복무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교도소 / 교도 김재민

군산사회복지장학회 수용자 마스크 기증

군산교도소는 11월 27일 군산사회복지장학회로부터 5만 6천 장의 KF94마스크와 비말마스크를 기증받았다. 김기봉 이사장은 “코로나19에도 수용자들이 수용생활에 두려움이나 동요 없이 안전하게 생활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소장은 “이번 마스크 기증은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수용생활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제주교도소 / 교사 황승민

4분기 대청소의 날 실시

제주교도소는 11월 11일 청사, 민원실 및 외부 정문 주변을 청소하는 ‘4분기 대청소의 날’ 행사를 가졌다. 청렴문구를 새긴 어깨띠를 두르고 진행한 이번 행사는 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청결하고 청렴한 교정기관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김춘오 소장은 “교도관과 수용자, 그리고 민원인이 상부상조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는 노력을 지속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장흥교도소 / 교위 오창용

산업안전 전문강사 초빙 안전교육 실시

장흥교도소는 11월 11일 산업안전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의식 강화’를 주제로 취업 수형자에 대한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박진홍 소장은 “안전사고는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에 대한 불감증으로 인해 야기되는 것이다.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순간을 대비해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자”라고 당부했다.

해남교도소 / 교도 박인휘

‘행복브릿지 영상편지’ 실시



해남교도소는 11월 18일 수용자의 영상편지를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가족에게 전송하는 ‘행복브릿지 영상편지’ 보내기 행사를 실시했다. 코로나19로 가족접견 등 수용자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이 장기간 시행되지 못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는 앞으로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사회적 차우를 위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정읍교도소 / 교도 박승현

야간 긴급 출동 훈련 실시

정읍교도소는 11월 12일 야간 긴급 출동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수용자의 난동 및 소란 행위에 대한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보호·채증 장비의 활용능력을 숙달함으로써 교정사고에 보다 적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2020년 12월

모범공무원을 소개합니다



인천구치소 교위 이응철

이응철 교위는 현재 출정과 인천지법에서 계호를 담당하며, 반목관계 및 공범 수용자에 대한 철저한 분리 동행을 통해 법정 내 증거인멸 및 위증교사, 폭행사고 등 재판진행을 방해하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원활한 형사소송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썼다. 또한 보안과 근무 시 조사 수용되는 수용자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과 올바른 규정 및 수용생활 안내를 통해 수용질서를 확립했다. 특히 조사 수용된 수용자들이 처우 변경에 의한 불안한 심리 상태에서 자살 및 자해를 시도하지 않도록 시찰 및 상담을 수시로 실시하여 교정사고 발생을 원천 차단하는 데도 기여했다.



경북북부제2교도소 교사 정의찬

정의찬 교사는 접견접수 근무 시 MBC에서 취재요청에 필요한 정식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용자의 지인으로 거짓 등록해 불법취재 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 접견 내용이 기사화되는 일이 없도록 차단했다. 또한 불법취재 행위에 대해 엄중항의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항의서한문을 발송함으로써 허위 과장보도를 미연에 방지했다. 또한 KBS의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접견 접수한 사실을 발견하여 취재요청 정식절차를 안내하는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관련자 및 취재가 예상되는 수용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교정행정 이미지 실추를 예방했다.



공주교도소 교위 이병욱

이병욱 교위는 수용동 근무 시 수용자의 애로사항 및 고충에 귀 기울이며 건전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도록 수용처우 개선에 힘썼다. 심리치료팀 근무 시 접견, 이송, 급수에 따른 혜택, 작업장 출역방법 등 수용생활 전반에 대한 상담을 통해 수용자의 원만한 수용생활을 유도했으며 고충처리팀 근무 시에는 인권친화적 교정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직원봉사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교도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등 모범적인 공직자로서 직원 및 주위 사람들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는 모범 교도관이다.



광주지방교정청 교위 최규림

최규림 교위는 총무과 급여업무 담당자로서 업무 규정과 지침, 업무 매뉴얼을 정확히 숙지하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모범 공무원이다. 특히 9월 말경 급여업무 처리 중 비공무원과 직원회 4대 보험 업무를 처리하면서 광주청 세입·세출 외 통장에 과오납 환급된 지방세 환급금을 발견, 즉시 세무서에 반환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매사 열정을 가지고 능동적인 업무 수행으로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한 최 교위는 직원들과도 협조·화합하여 명랑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귀감이 되고 있다.

경북북부제3교도소 장나리 교위를 칭찬합니다.

10여 년 전, 첫 발령을 받아 안동교도소에 왔던 장나리 교도를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눈이 뜰망뜰망하고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호기심을 동원해 선배들을 따라 다니며 열심히 교정생활에 적응해가는 예쁜 후배였습니다. 저도 후배 덕분에 젊은 트렌드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 능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소내 동아리 볼링 모임에서도 술선수범하는 장나리 교위는 모든 직원에게 귀감이 되는 든직한 후배였습니다.

경북북부제3교도소로 떠나보낼 때는 동료 여직원 모두 가족을 떠나보내는 듯한 상실감을 느꼈지만, 그곳에서도 선후배 및 동료들과 성실히 잘 생활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참 뿌듯했습니다. 업무적인 도움을 요청하면 즉시 성심성의껏 알아봐주고 챙겨주는 모습이 눈에 선할 정도로 신뢰가 가는 멋진 친구이자 후배입니다. 부부 교도관인 남편 황정욱 교위의 전폭적인 믿음과 지지 아래 보석 같은 형제를 키우며 시골에서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이 아름다운 부부를 항상 응원합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힘들었을 나리아, 고생했어!

2021년은 더욱 풍성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파이팅하자.

칭찬해주신 분 : 안동교도소 복지과 교감 김경애

‘머리 부딪침 주의’ 표지판을 붙여보세요

포항교도소 복지과 공업주사 김태현 님이 보내주신
업무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포항교도소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맡아 수행하고 있다. 수용자 냉난방을 관리하는 기계실을 자주 들르는데 오래된 곳이라 바닥 도색도 되어 있지 않은 데다 계단이 많고 머리 위로는 배관이 지나가는 등 자칫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곳이었다.

평소에는 최대한 조심하자는 마음으로 기계실을 다녔으나 종종 동료들이 배관에 머리를 부딪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나 혼자만 조심한다고 될 일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계실을 좀 더 안전한 근무공간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안전보건 표지판을 붙여보기로 했다. 올해 초에 ‘보일러 취급 주의’, ‘머리 부딪침 주의’, ‘계단 주의’ 등과 같은 표지판을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는 곳마다 부착했다. 표지판을 부착한 이후로는 기계실을 이용하는 동료들이 훨씬 더 조심하는 듯하다. 바닥도 녹색으로 도색을 했더니 훨씬 더 깨끗해졌을 뿐만 아니라 미끄러움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16년 된 낡은 건물이지만 새로 지은 교도소의 기계실처럼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칭찬도 들었다. 사소한 시도로 기계실이 한층 더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게 되어 뿌듯하다.

일선 현장에서 경험으로 터득한 자신만의 생생한 업무 노하우를 공유해주세요.
선정된 직원분의 업무 노하우는 월간 <한> 지면을 통해 소개하고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참여자격 : 교정공무원 누구나
공모기간 : 수시 모집 중
당첨자 선물 : 5만 원 상당 상품권

참여방법 : 이메일 correct2015@naver.com
또는 yjw1219@korea.kr로 보내주세요.
QR코드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월간 <교정>이 동료 간에 칭찬을 주고받으며 행복하고 즐거운 직장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칭찬합시다’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내 주변에 꼭 칭찬하고 싶은 동료가 있다면 월간 <교정>을 통해 소개해주세요. 참여해주신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칭찬의 주인공에게는 특별한 하루를 선물해드립니다.



• 사연은 이메일 correct2015@naver.com,
yjw1219@korea.kr로 보내주세요.
• QR코드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달의 퀴즈는 숨은 그림 찾기

그림 속에서 8개의 숨은 그림을 찾아보세요

숨은 그림을 찾아서 이메일(correct2015@naver.com, yjw1219@korea.kr)로 보내주세요. 선정된 분에게는 선정된 분에게는 소원을 말해봐 참여기회 또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1.
- 2.
- 3.
- 4.
- 5.
- 6.
- 7.
- 8.

지난 호 정답 A=3, B=7, C=6, D=2, E=1, F=8, G=5, H=4

지난호 퀴즈 당첨자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한벗 대구구치소 윤영옥

우리 모두는 미세먼지 피해자이자 해결사!

미세먼지는 줄이고 건강은 지키는 8가지 실천 방법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평시보다 미세먼지가 악화되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평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임.

01 가까운 거리는 걷고, 친환경 운전 습관 지키기!



02 폐기물 배출을 줄여 소각량 줄이기!



05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도 10분씩 하루 3번, 조리 후에는 30분 이상 환기 필수!



04 불법소각, 배출은 바로 신고하기!
환경오염 신고 | 128



03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하고 난비되는 대기전력 줄이기!

06 공기청정기나 환기시스템의 필터는 미리 점검!



07 외출 후에는 손씻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08 미세먼지 매우 나쁜 날에는 격렬한 운동 피하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함께해주세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2020.12~2021.03)

"미세먼지 대응 실천에 함께 해주실거죠?"

- | | | | |
|---|--|--|--|
| <p>수 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제한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활성화 | <p>공 공 발 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석탄화력발전 가동중단 에너지 수급관리 강화 | <p>산 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장 불법 배출 집중 감시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 협약 | <p>생 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농 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 영농 잔재물 지자체 책임처리제 시행 |
|---|--|--|--|